



II

2023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

1. 살인

1) 범죄유형

- 2023년에는 총 801건의 살인범죄¹⁴가 발생하였다. 이중 일반 살인범죄가 675건으로 84.3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존속살해 60건(7.5%), 자살교사/방조 55건(6.9%), 아동학대살해¹⁵ 5건(0.6%), 영아살해 5건(0.6%), 촉탁·승낙살인 1건(0.1%)이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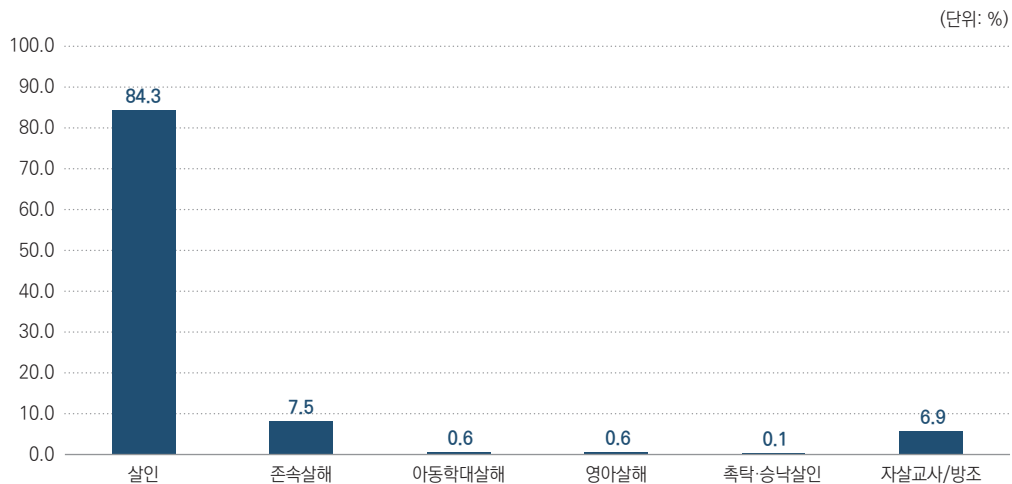


그림 24 주요 살인범죄 유형별 구성비

14 살인범죄의 발생건수는 살인(기수), 살인(미수, 예비, 음모, 방조) 범죄가 모두 포함

15 아동학대살해: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(아동학대살해)를 의미

2) 범죄발생시간

- 살인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¹⁶은 밤(20:00~03:59, 38.1%)이었으며, 그 다음으로는 오후(12:00~17:59, 23.7%), 저녁(18:00~19:59, 12.2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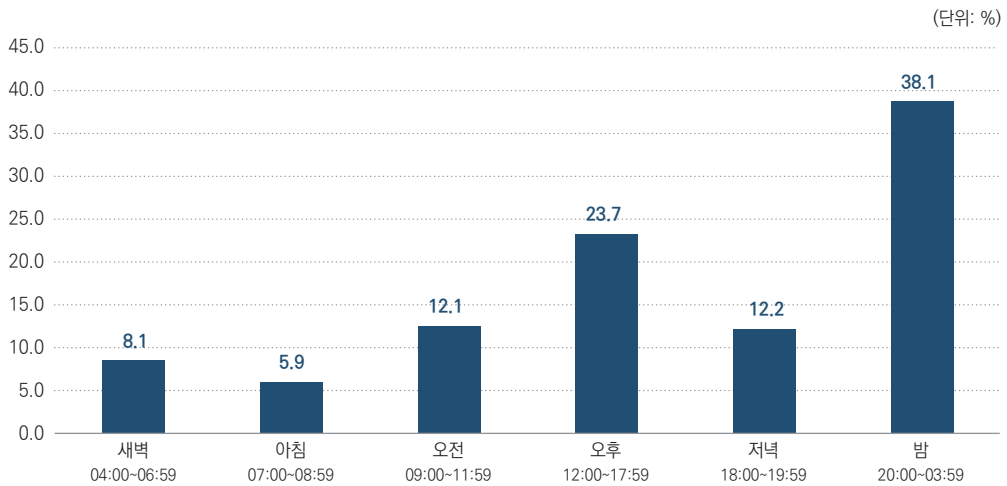


그림 25 살인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3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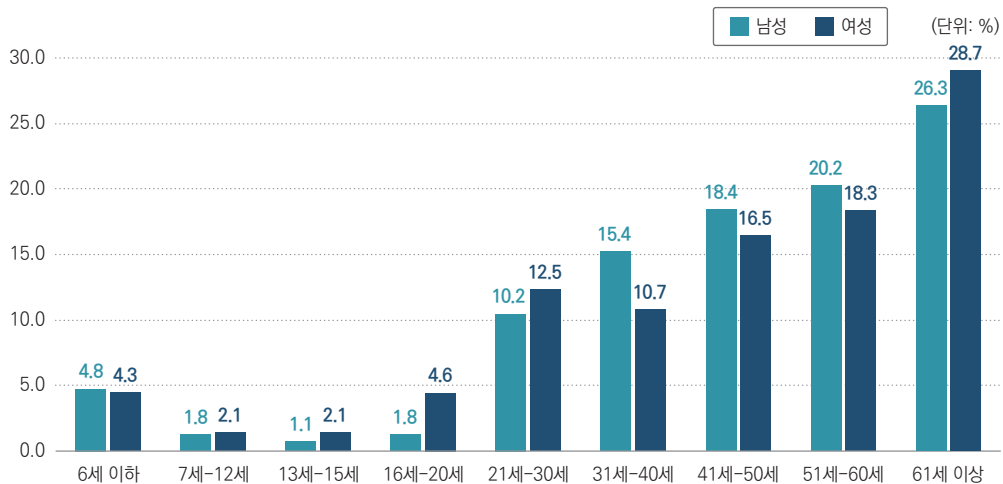
- 살인범죄 피해자의 57.4%는 남자였으며, 42.6%는 여성이었다.
- 살인범죄 피해자의 64.3%가 41세 이상의 연령층이었다.
- 남성피해자는 61세 이상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51세~60세 순이었다. 여성피해자는 61세 이상이 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은 51세~60세 순이었다. 15세 이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건수는 남아동 34건, 여동 28건으로 남아동이 여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, 피해비율은 여동이 8.6%로 남아동에 비하여 0.9%p 높게 나타났다.

16 발생시간별 비율은 발생시간이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작성, 이하 작성되는 각 범죄별 항목별 표, 그래프에 표시된 비율은 별도로 언급된 경우 외에는 항목별 미상을 제외하고 작성된 통계임

표 24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: 건(%))

피해자 연령	피해자 성		계
	남성	여성	
6세 이하	21(4.8)	14(4.3)	35(4.6)
7세-12세	8(1.8)	7(2.1)	15(2.0)
13세-15세	5(1.1)	7(2.1)	12(1.6)
16세-20세	8(1.8)	15(4.6)	23(3.0)
21세-30세	45(10.2)	41(12.5)	86(11.2)
31세-40세	68(15.4)	35(10.7)	103(13.4)
41세-50세	81(18.4)	54(16.5)	135(17.6)
51세-60세	89(20.2)	60(18.3)	149(19.4)
61세 이상	116(26.3)	94(28.7)	210(27.3)
계	441(100.0)	327(100.0)	768(100.0)


그림 26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4) 신체피해정도

- 살인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261건으로 전체의 33.9%였다. 살인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319건(41.4%), 신체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190건(24.7%)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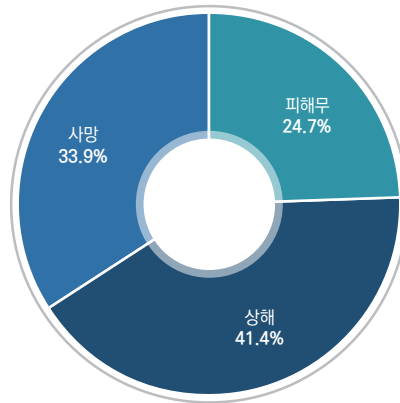


그림 27 살인범죄 피해자의 신체피해정도

5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살인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, 전체의 22.1%가 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. 타인 외의 관계에서는, 친족관계인 경우가 전체의 34.4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이웃/지인(18.0%), 애인(11.0%), 친구/직장동료(9.2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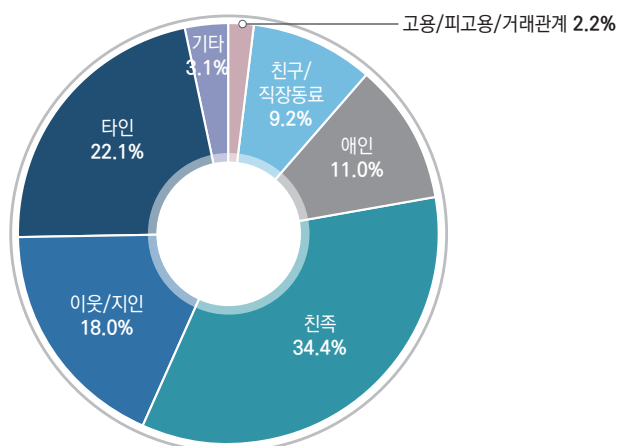


그림 28 살인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6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80.9%가 남성이었으며, 여성은 19.1%로 나타났다.
- 남성범죄자는 61세 이상 연령층이 24.3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51세~60세, 41세~50세, 19세~30세 순이었다.
- 여성범죄자는 19세~30세 연령층이 25.8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은 41세~50세, 31세~40세 순이었다.
- 여성범죄자의 40세 이하 비율은 50.3%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범죄자(32.1%)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, 남성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41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표 25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11(1.7)	11(7.3)	22(2.8)
19세~30세	101(15.8)	39(25.8)	140(17.7)
31세~40세	94(14.7)	26(17.2)	120(15.2)
41세~50세	131(20.4)	29(19.2)	160(20.2)
51세~60세	148(23.1)	24(15.9)	172(21.7)
61세 이상	156(24.3)	22(14.6)	178(22.5)
계	641(100.0)	151(100.0)	792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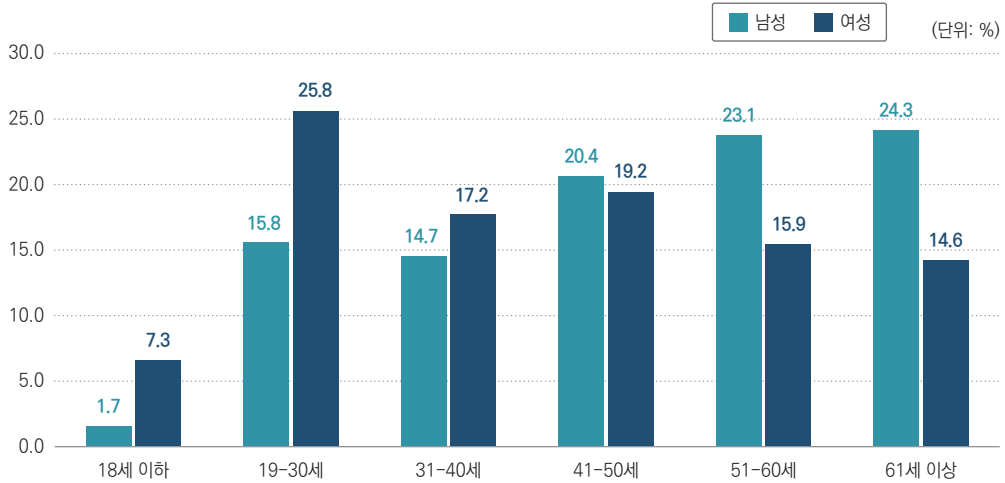


그림 29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7) 범죄자의 전과

-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51.1%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는 25.0%이며,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는 23.8%로 나타났다.

8)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

-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56.1%가 범행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다. 34.0%는 주취상태였으며, 9.8%는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남성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10.4%로 여성범죄자(6.9%)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, 주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비율도 35.8%로 여성범죄자(24.8%)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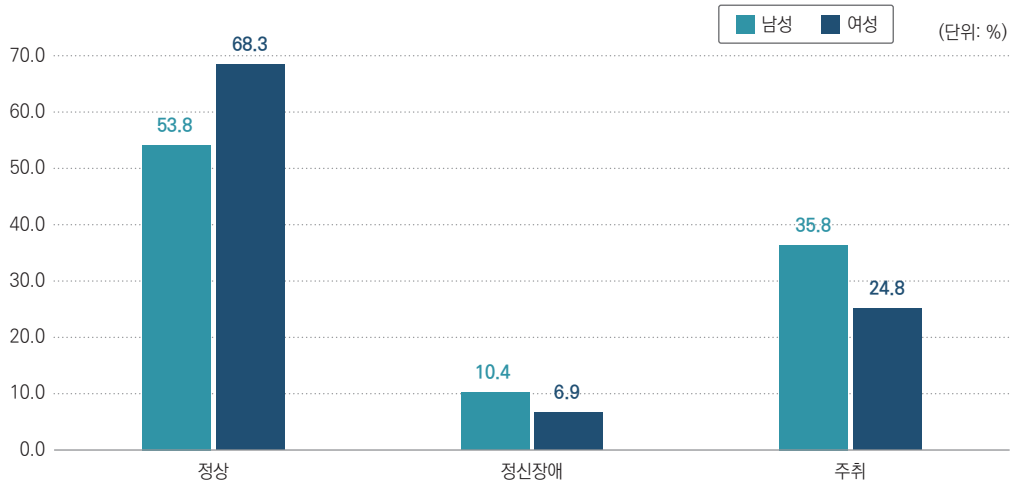


그림 30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

2. 강도

1) 범죄발생시간

- 2023년 총 599건의 강도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40.1%가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다. 전체적으로 강도범죄의 50.0%가 저녁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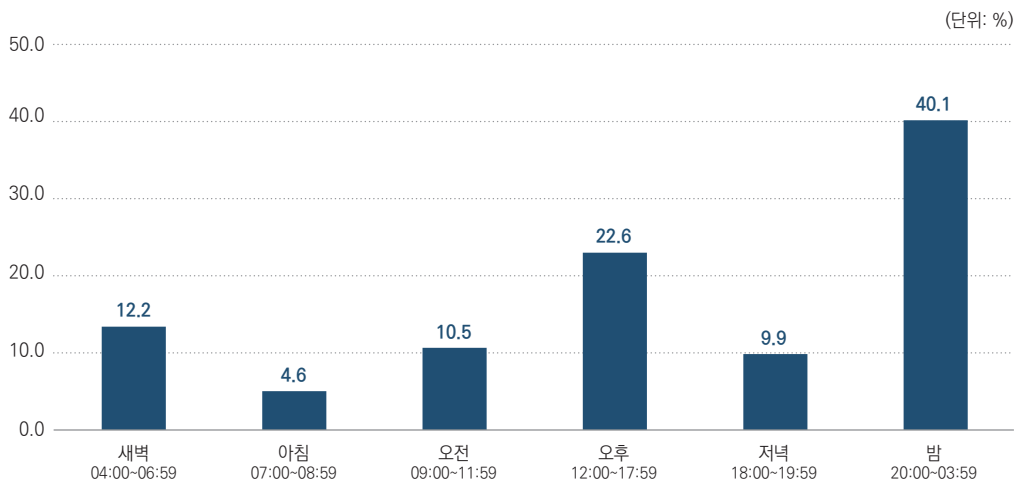


그림 31 강도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2) 범죄발생장소

- 강도범죄는 기타(29.5%)를 제외하면, 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23.9%로 가장 많았다.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 21.7%, 상점 12.2%, 유흥접객업소 7.0%, 숙박업소/목욕탕 5.7%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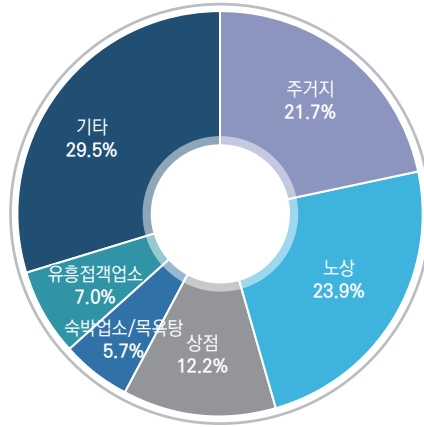


그림 32 강도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3) 범행수법

- 범행수법별로는 기타가 49.5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침입강도 30.4%, 노상강도 7.2%의 순이었다. 이어서 약취강도 6.7%, 마취강도 3.6%, 강도강간 1.1%, 차내강도 0.9%, 차량이용강도 0.7% 등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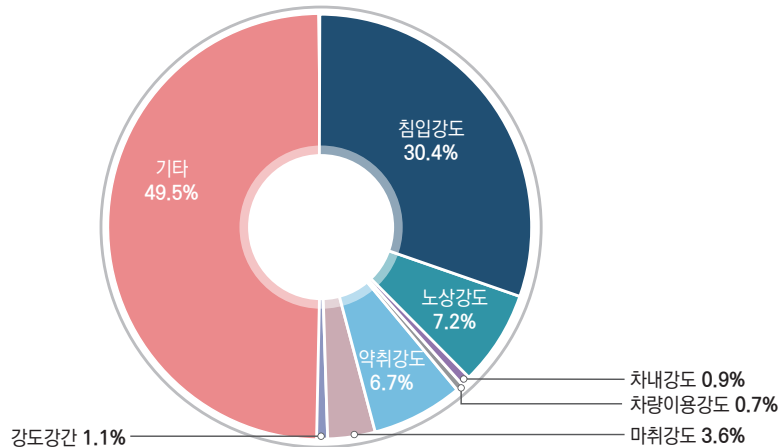


그림 33 강도범죄의 범행수법

4) 재산피해정도

- 강도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피해액수는 10만원 초과~100만원 이하가 29.7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100만원 초과~1,000만원 이하가 27.6%, 1,000만원 초과~1억원 이하가 14.3%를 차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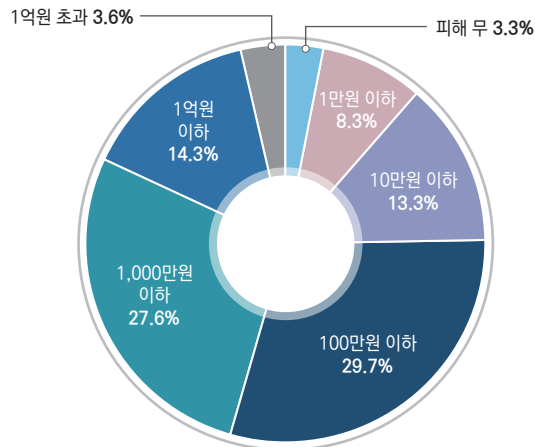


그림 34 강도범죄의 재산피해정도

5) 신체피해정도

- 강도범죄로 인한 신체피해정도는 피해가 없는 경우가 62.7%였고, 상해피해를 입은 경우가 35.6%인 것으로 나타났다. 강도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10건으로 1.8%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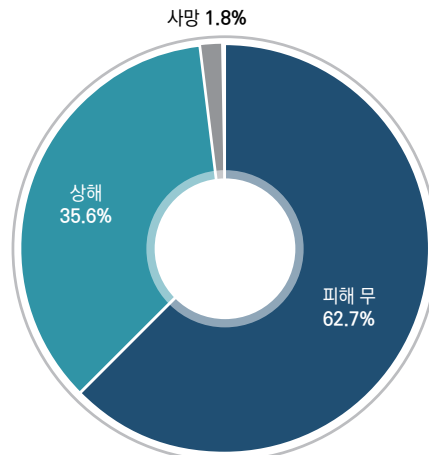


그림 35 강도범죄 피해자의 신체피해정도

6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강도범죄 범죄자의 87.5%가 남성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.
- 강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, 19세~30세가 27.7%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8세 이하 소년범죄자(21.4%)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- 남성범죄자는 19세~30세의 비율이 29.6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18세 이하(19.6%), 31세~40세(17.2%) 등으로 나타났다.
- 여성범죄자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34.5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31세~40세(17.3%), 41세~50세(16.4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여성범죄자는 남성범죄자에 비해 18세 이하, 31세~40세, 41세~50세, 51세~60세 연령층의 비율이 높았고, 19세~30세, 61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.

표 26 강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150(19.6)	38(34.5)	188(21.4)
19세~30세	227(29.6)	16(14.5)	243(27.7)
31세~40세	132(17.2)	19(17.3)	151(17.2)
41세~50세	115(15.0)	18(16.4)	133(15.2)
51세~60세	94(12.3)	14(12.7)	108(12.3)
61세 이상	49(6.4)	5(4.5)	54(6.2)
계	767(100.0)	110(100.0)	877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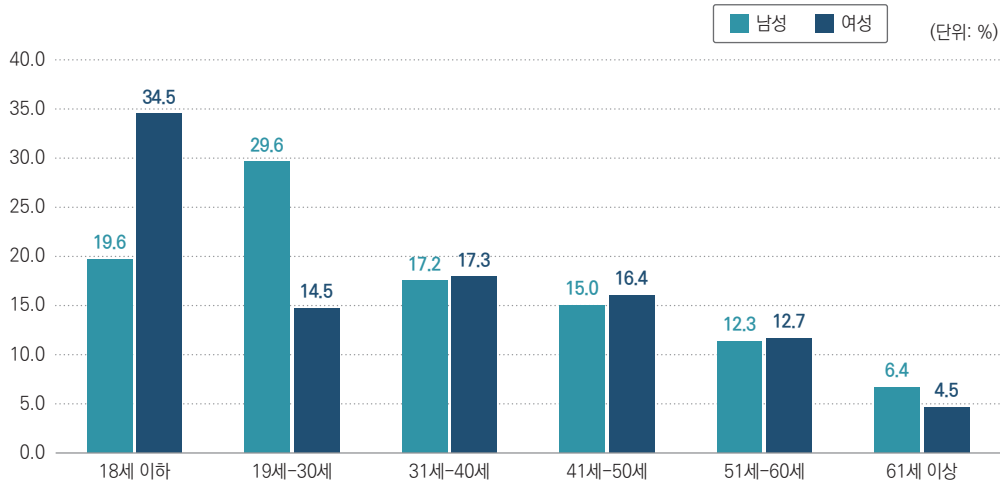


그림 36 강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7) 범행동기

- 강도범죄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, 생활비 마련이 26.3%로 가장 많았고, 유흥/도박비 마련 11.6%, 우발적 10.2% 순이었다.
- 강도범죄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24.3%, 성인범죄자의 비율은 75.7%로 나타났다.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 비율은 유흥/도박비 마련이 성인범죄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

표 27 강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행동기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생활비 마련	44(24.0)	154(27.1)	198(26.3)
유흥/도박비 마련	47(25.7)	40(7.0)	87(11.6)
우발적	6(3.3)	71(12.5)	77(10.2)
기타	86(47.0)	304(53.4)	390(51.9)
계	183(100.0)	569(100.0)	752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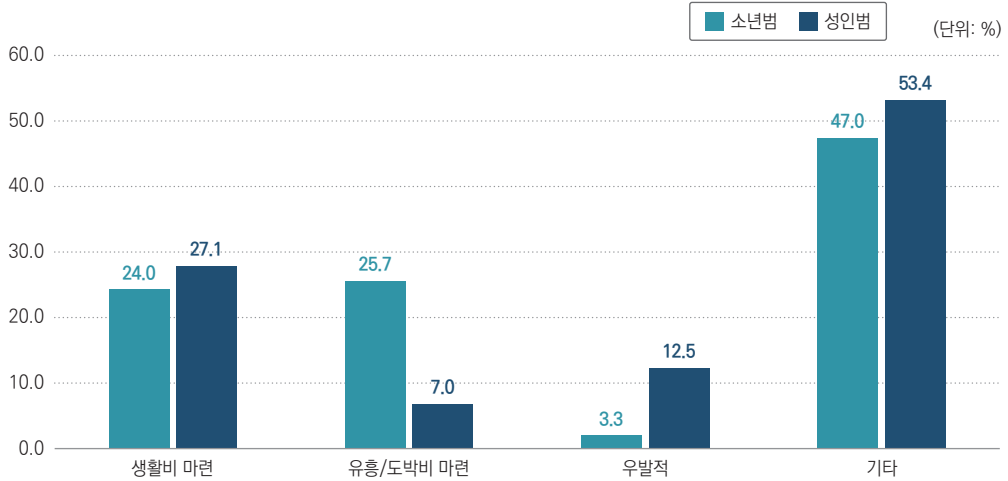


그림 37 강도범죄 범주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

8) 공범 여부

- 강도범죄의 56.0%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성인범죄자의 44.2%가 공범이 있는 반면에, 소년범죄자는 92.9%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표 28 강도범죄 범주의 연령별 공범 여부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공범 여부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단독범	13(7.1)	319(55.8)	332(44.0)
공범	169(92.9)	253(44.2)	422(56.0)
계	182(100.0)	572(100.0)	754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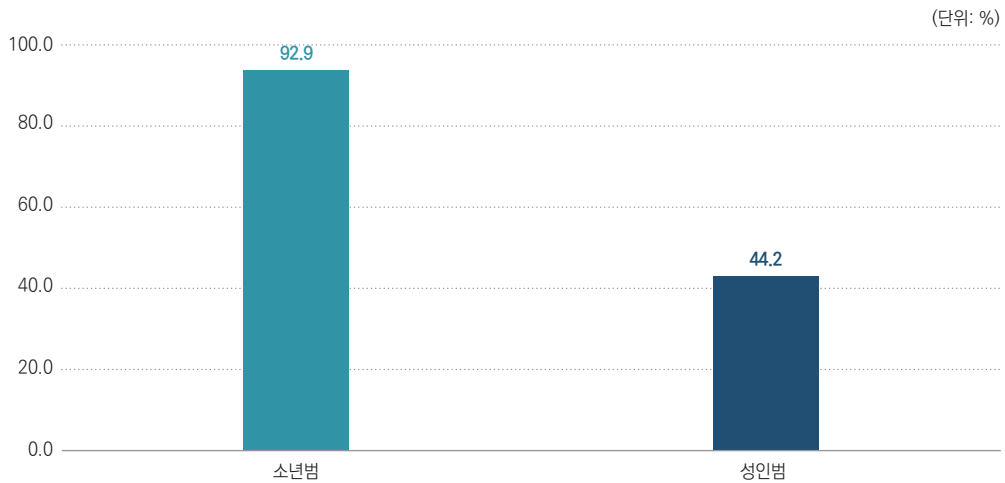


그림 38 강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공범비율

3. 성폭력

1) 범죄발생시간 및 계절

- 2023년 38,698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41.6%가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고, 25.4%는 오후(12:00~17:59)에 발생하였다. 전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51.7%가 저녁시간 이후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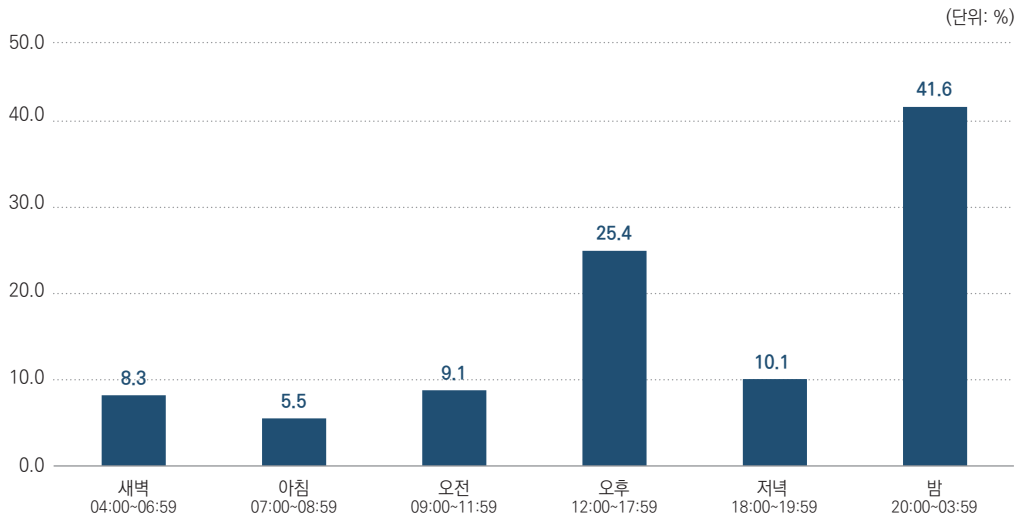


그림 39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-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(27.3%)인 것으로 나타났다. 그 다음은 봄(26.3%), 가을(24.3%), 겨울(22.1%)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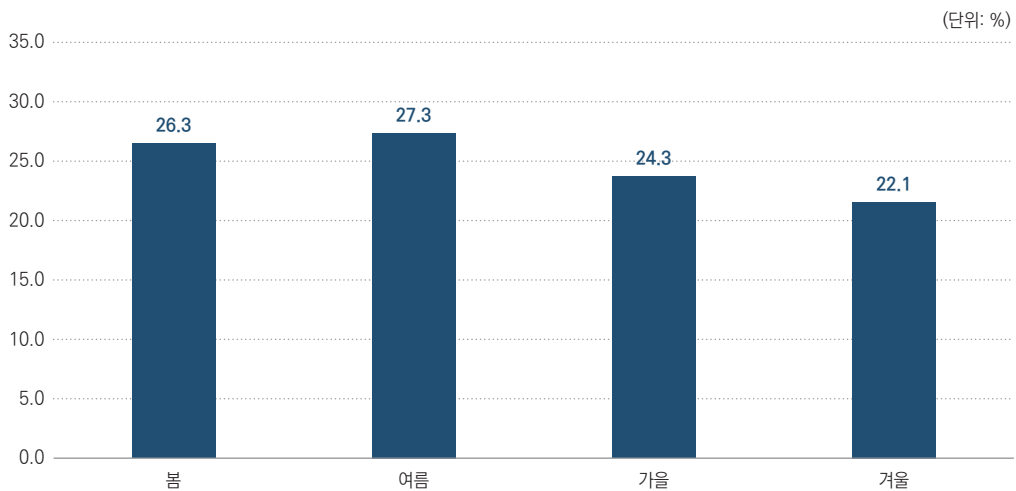


그림 40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계절

2) 범죄발생장소

- 성폭력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보면, 주거지(21.8%)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, 그 다음으로는 노상(9.5%), 유흥접객업소(8.9%), 교통수단(7.8%), 숙박업소/목욕탕(4.7%)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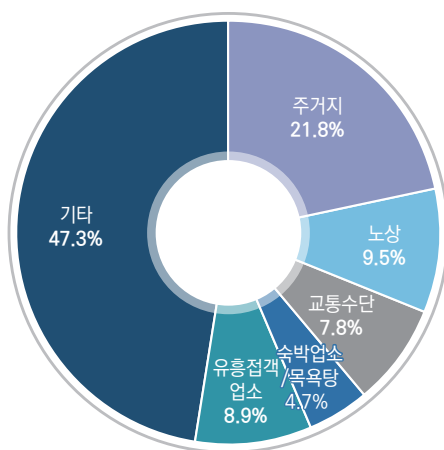


그림 41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3) 피해자의 연령

-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21세~30세(41.8%)가 가장 많았다. 그 다음은 16세~20세(16.0%), 31세~40세(15.6%) 등의 순이었다. 전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10.9%가 15세 이하의 청소년이었고, 61세 이상의 연령층은 2.6%를 차지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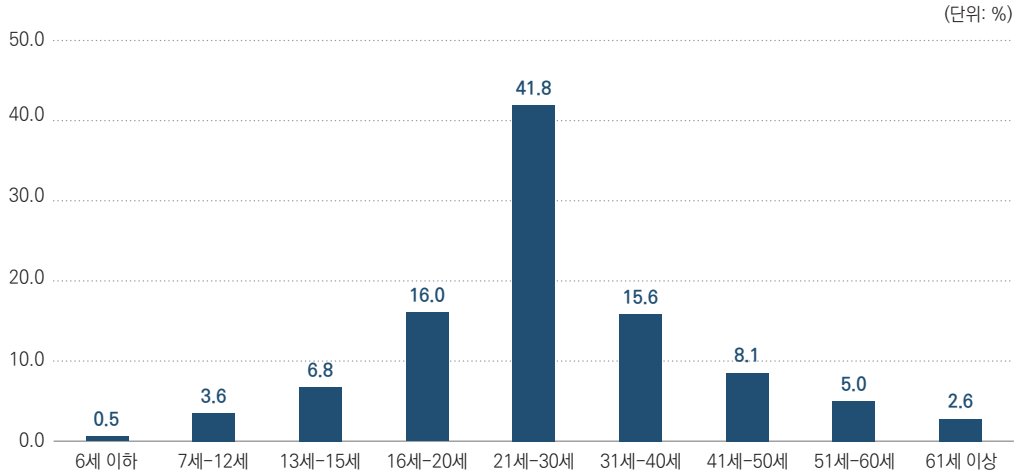


그림 4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

4) 공범 여부

- 성폭력범죄의 96.3%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소년범죄자의 경우에는 단독범의 비율이 90.8%로 성인범죄자(97.1%)보다 낮고, 공범비율이 9.2%로 성인범죄자(2.9%)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.

표 29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공범 여부별 분포

(단위: 명(%))

공범 여부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단독범	3,041(90.8)	21,867(97.1)	24,908(96.3)
공범	309(9.2)	658(2.9)	967(3.7)
계	3,350(100.0)	22,525(100.0)	25,875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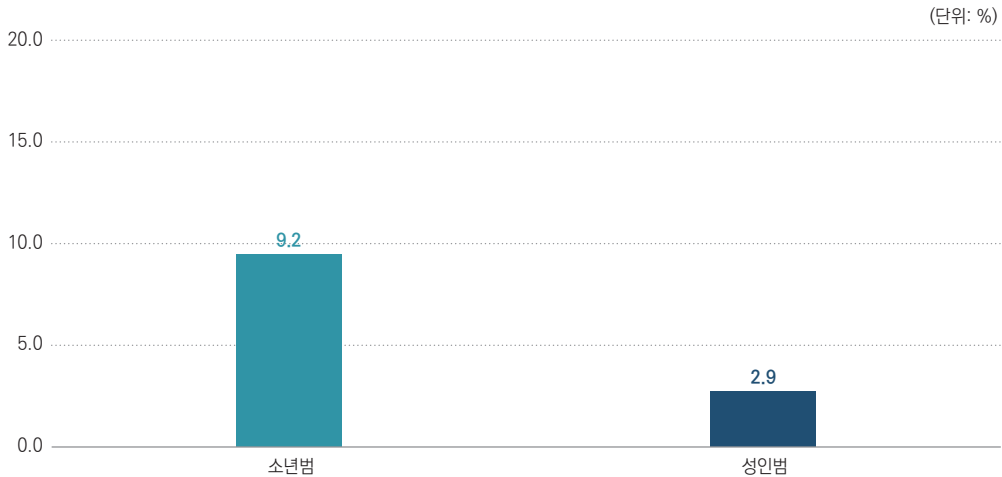


그림 43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공범비율

5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성폭력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, 타인이 62.9%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. 소년범죄자의 경우 친구 등의 비율이 23.7%로 성인범죄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, 그 외 타인 등의 비율은 모두 낮게 나타났다.

표 30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피해자의 관계별 분포

(단위: 명(%))

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고용관계	0(0.0)	519(1.6)	519(1.4)
친구 등	1,065(23.7)	2,416(7.6)	3,481(9.6)
애인	240(5.3)	2,122(6.6)	2,362(6.5)
친족	61(1.4)	792(2.5)	853(2.3)
이웃/지인	391(8.7)	3,931(12.3)	4,322(11.9)
타인	2,578(57.3)	20,337(63.7)	22,915(62.9)
기타	168(3.7)	1,815(5.7)	1,983(5.4)
계	4,503(100.0)	31,932(100.0)	36,435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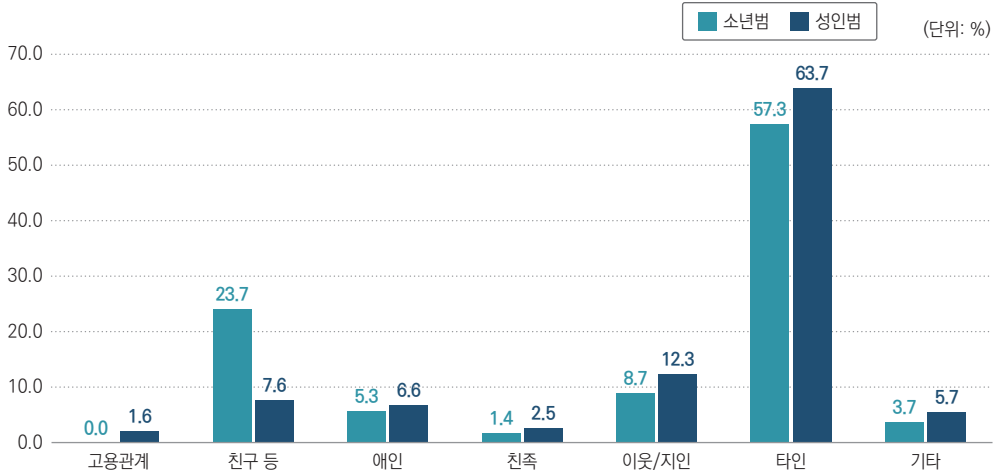


그림 44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피해자의 관계별 분포

4. 방화

1) 범죄발생시간

- 2023년에는 총 1,189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40.6%가 밤(20:00~03:59) 시간대에 발생하였으며, 22.7%는 오후(12:00~17:59) 시간대에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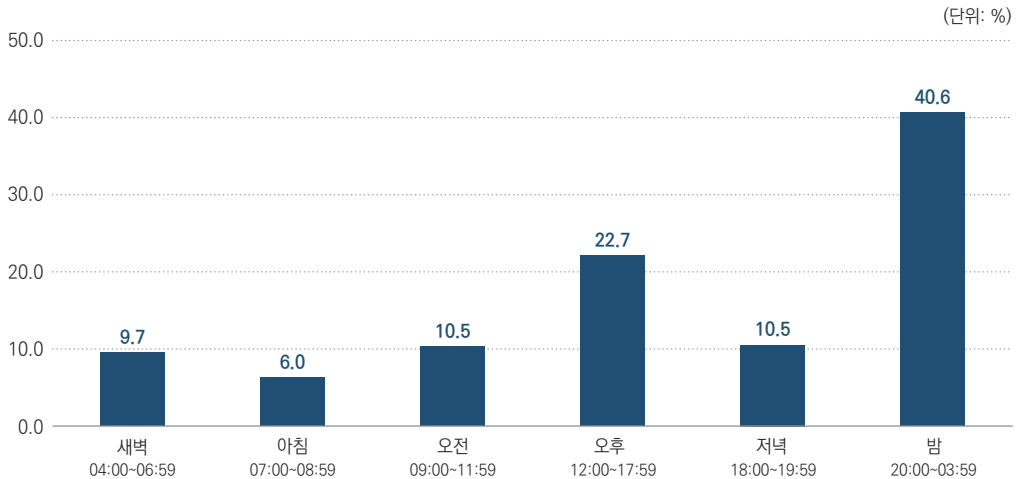


그림 45 방화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2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방화범죄 범죄자의 81.4%는 남성이었으며, 18.6%가 여성으로 나타났다.
- 검거된 방화범죄 범죄자는 51세~60세가 29.4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61세 이상(18.9%), 41세~50세(18.1%), 31세~40세(12.7%) 등의 순이었다.
- 남성범죄자는 51세~60세의 비율이 30.6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61세 이상(20.0%), 41세~50세(17.5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- 여성범죄자는 51세~60세의 비율이 24.4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41세~50세(20.4%), 31세~40세(17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표 31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89(10.1)	14(7.0)	103(9.5)
19세~30세	90(10.2)	33(16.4)	123(11.4)
31세~40세	101(11.5)	36(17.9)	137(12.7)
41세~50세	154(17.5)	41(20.4)	195(18.1)
51세~60세	269(30.6)	49(24.4)	318(29.4)
61세 이상	176(20.0)	28(13.9)	204(18.9)
계	879(100.0)	201(100.0)	1,080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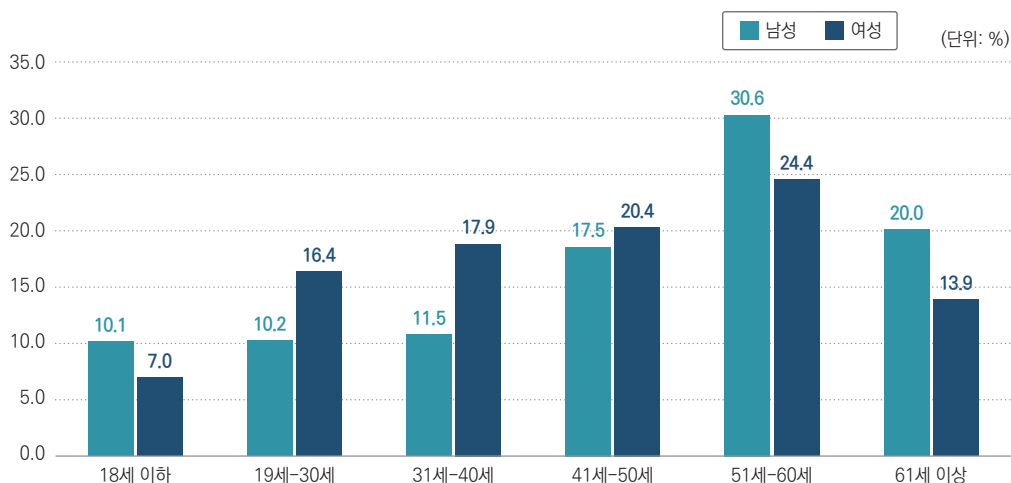


그림 46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3) 방화범죄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

- 방화범죄 범죄자의 47.5%는 정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, 31.9%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. 방화범죄 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20.5%였다. 여성범죄자는 남성범죄자에 비해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(여성 32.4%, 남성 17.9%), 남성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(남성 34.2%, 여성 21.8%).

표 32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

(단위: 명(%))

범행시 정신상태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정상	364(47.9)	78(45.9)	442(47.5)
정신장애	136(17.9)	55(32.4)	191(20.5)
주취	260(34.2)	37(21.8)	297(31.9)
계	760(100.0)	170(100.0)	930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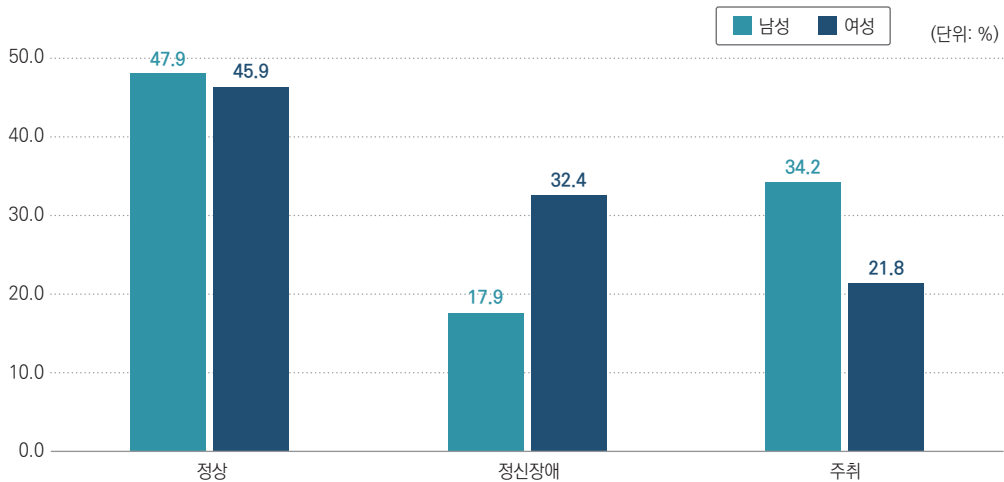


그림 47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

5. 폭행/상해

1) 범죄발생시간

- 2023년 총 147,953건의 폭행/상해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46.1%가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다.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대는 오후(12:00~17:59)로 22.0%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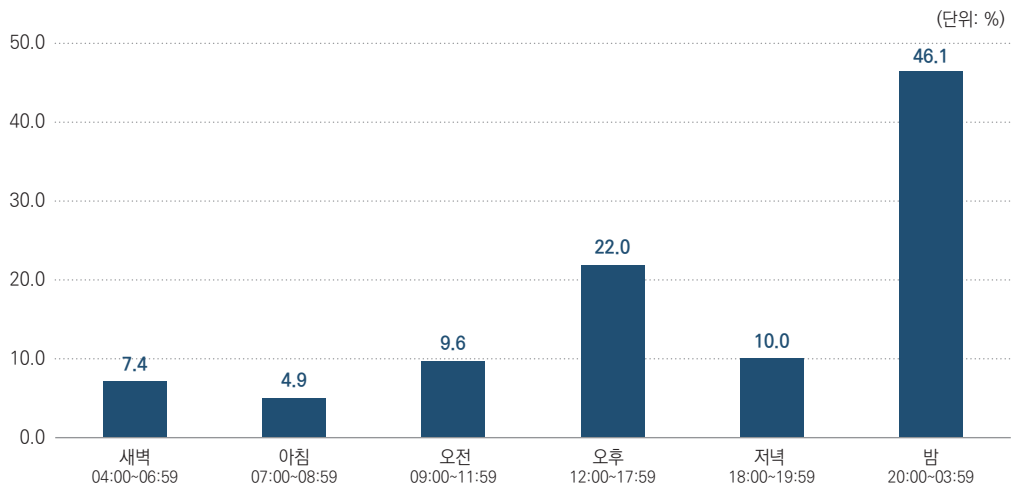


그림 48 폭행/상해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2) 범죄발생장소

- 폭행/상해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, 노상(33.2%)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(25.9%), 유흥접객업소(11.1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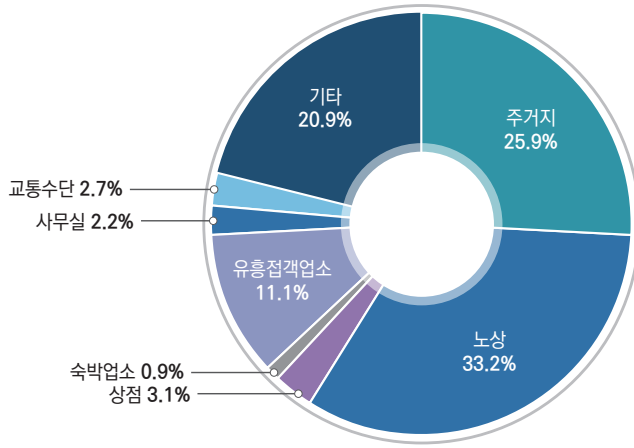


그림 49 폭행/상해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3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폭행/상해범죄 피해자의 62.3%는 남성이고, 37.7%는 여성이다.
- 폭행/상해범죄의 피해자는 21세~30세(19.8%)가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41세~50세(18.9%), 31세~40세(18.2%) 등의 순이다.
- 여성피해자는 남성에 비해 31세~40세와 41세~50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, 남성피해자의 경우 여성에 비해 15세 이하, 16세~20세, 21세~30세, 51세~60세, 61세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.



표 33 폭행/상해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: 건(%))

피해자 연령	피해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5세 이하	3,283(3.6)	1,565(2.8)	4,848(3.3)
16세-20세	5,804(6.4)	2,637(4.8)	8,441(5.8)
21세-30세	18,890(20.7)	10,084(18.3)	28,974(19.8)
31세-40세	15,743(17.3)	10,952(19.9)	26,695(18.2)
41세-50세	16,259(17.8)	11,418(20.7)	27,677(18.9)
51세-60세	16,103(17.7)	9,590(17.4)	25,693(17.6)
61세 이상	15,114(16.6)	8,896(16.1)	24,010(16.4)
계	91,196(100.0)	55,142(100.0)	146,338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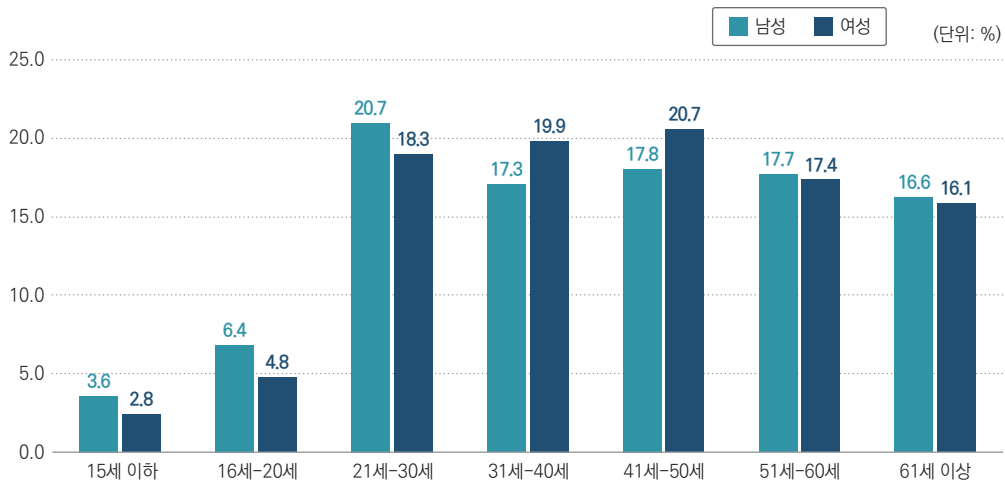


그림 50 폭행/상해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4) 신체피해정도

- 피해자의 77.9%는 폭행/상해범죄로 인해 어떠한 신체피해도 입지 않았다. 상해를 입은 경우는 22.0%이며, 사망한 경우는 0.1%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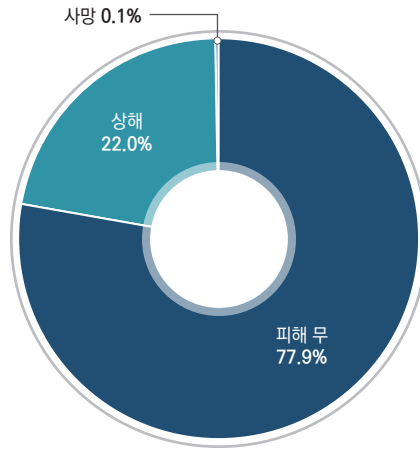


그림 51 폭행/상해범죄 피해자의 신체피해정도

5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폭행/상해범죄 범죄자의 80.0%는 남성이고, 20.0%는 여성이다.
- 폭행/상해범죄 범죄자의 주된 연령층은 41세~50세와 51세~60세(각 20.8%)이고, 그 다음은 19세~30세(18.5%), 61세 이상(17.6%)의 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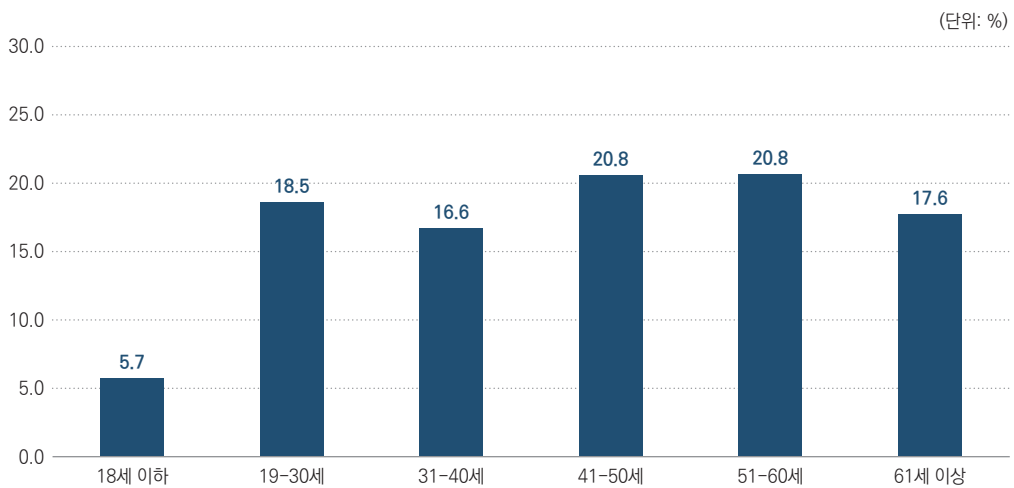


그림 52 폭행/상해범죄 범죄자의 연령

6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폭행/상해범죄의 50.4%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, 45.4%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였다.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9.5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이웃/지인(11.8%), 직장동료/친구(8.1%), 애인(5.5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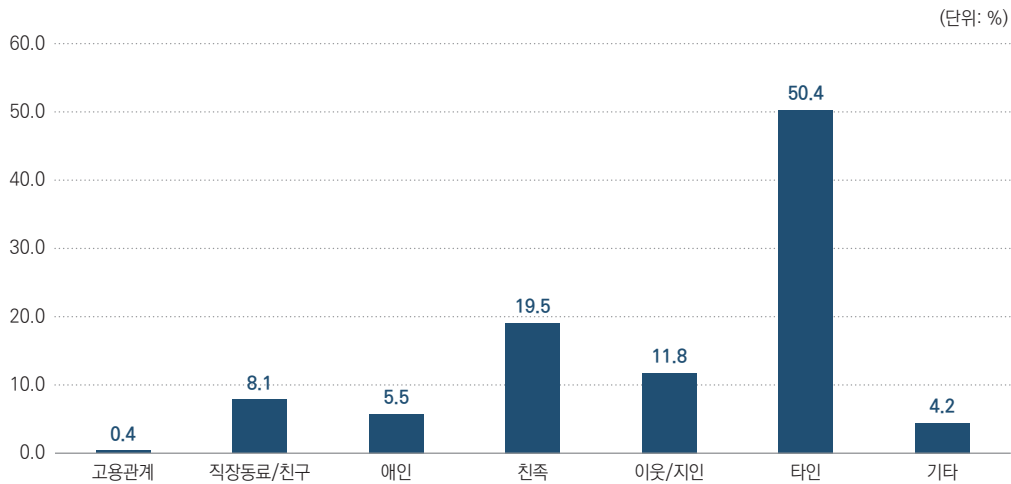


그림 53 폭행/상해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6. 절도

1) 범죄발생시간

- 2023년 총 189,942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35.6%가 오후(12:00~17:59)에 발생하였고, 25.6%는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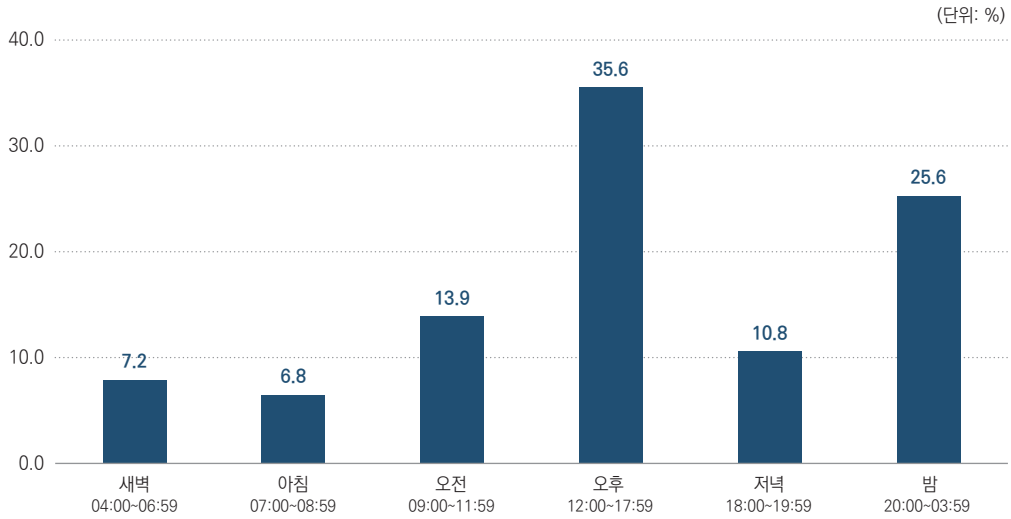


그림 54 절도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2) 범죄발생장소

- 절도범죄의 발생장소는 기타(25.4%)를 제외해보면, 상점이 26.5%로 가장 많았고, 이외에도 노상 25.3%, 주거지 12.6%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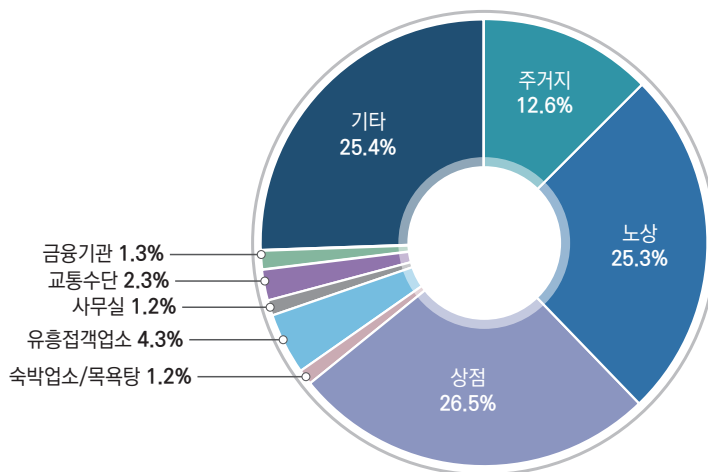


그림 55 절도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3) 범행수법

- 절도범죄의 범행수법은 기타(87.2%)를 제외해보면, 치기절도¹⁷가 6.1%(11,537건)로 가장 많았고, 침입절도 6.1%(11,494건), 속임수절도¹⁸ 0.6%의 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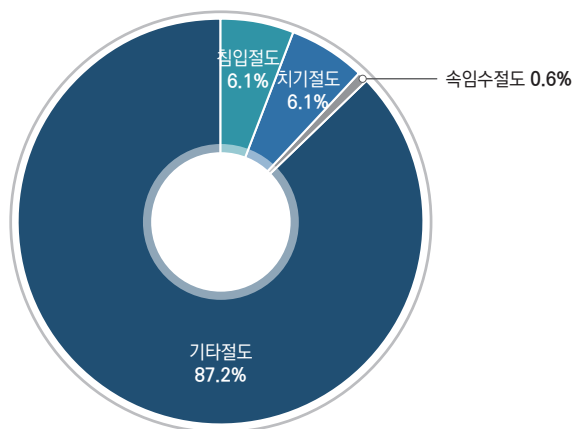


그림 56 절도범죄의 범행수법

4) 재산피해정도

- 절도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살펴보면, 10만원 초과~100만원 이하가 36.0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1만원 초과~10만원 이하가 32.2%, 1만원 이하가 13.6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전체 절도범죄사건의 81.9%가 100만원 이하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.

17 치기절도는 발생통계원표 상 '소매치기', '날치기', '들치기'의 범죄수법을 의미

18 속임수절도는 전화를 걸어 업주를 밖으로 유인하는 등 속임수를 이용한 절도를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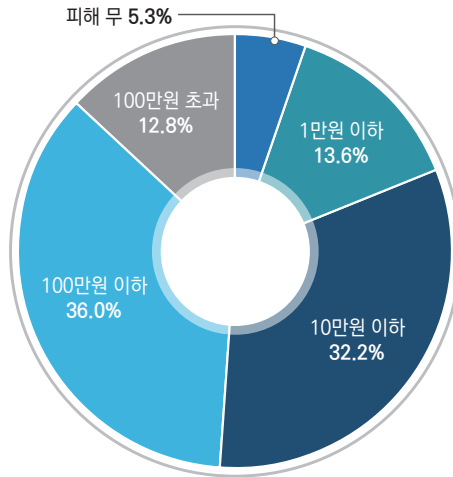


그림 57 절도범죄 피해자의 재산피해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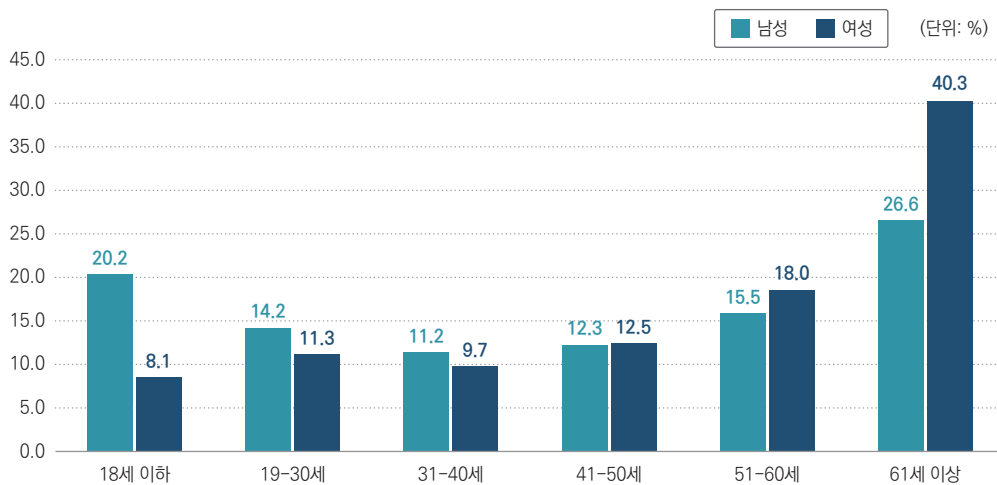
5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절도범죄 범죄자의 69.5%가 남성이며, 30.5%가 여성이다.
- 절도범죄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61세 이상으로 전체의 30.8%를 차지하고 있으며, 18세 이하(16.5%), 51세~60세(16.3%) 등의 순이었다.
- 절도범죄 범죄자는 18세 이하, 19세~30세, 31세~40세의 연령대에서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, 41세~50세, 51세~60세, 61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남성범죄자는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, 여성범죄자는 높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보였다.

표 34 절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14,203(20.2)	2,500(8.1)	16,703(16.5)
19세-30세	9,969(14.2)	3,471(11.3)	13,440(13.3)
31세-40세	7,829(11.2)	2,982(9.7)	10,811(10.7)
41세-50세	8,667(12.3)	3,848(12.5)	12,515(12.4)
51세-60세	10,871(15.5)	5,546(18.0)	16,417(16.3)
61세 이상	18,666(26.6)	12,410(40.3)	31,076(30.8)
계	70,205(100.0)	30,757(100.0)	100,962(100.0)


그림 58 절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6) 범죄자의 전과

- 절도범죄 범죄자의 58.2%는 전과가 있었다.
-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에 따라 전과자 비율은 차이를 보여,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31.6%인 반면에, 성인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63.9%로 소년범죄자에 비해 더 높았다.

표 35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전과 여부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전과 여부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전과없음	10,961(68.4)	27,013(36.1)	37,974(41.8)
전과있음	5,071(31.6)	47,890(63.9)	52,961(58.2)
계	16,032(100.0)	74,903(100.0)	90,935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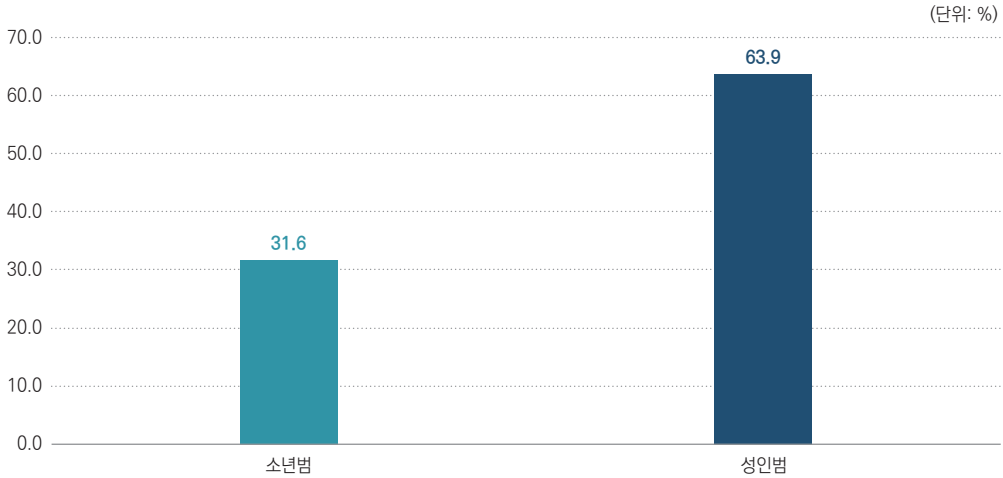


그림 59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전과자 비율

7) 범행동기

- 절도범죄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기타를 제외하고 보면, 기타이유가 26.5%로 가장 많았다. 그 다음은 우발적(21.0%), 생활비 마련(14.6%) 등의 순이다.
- 소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에 비해 유흥/도박비 마련(소년범 4.4%, 성인범 1.0%)이나 호기심/유혹(소년범 20.0%, 성인범 2.0%)에 의해서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.

표 36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행동기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생활비 마련	1,709(10.5)	11,508(15.5)	13,217(14.6)
유혹/도박비 마련	721(4.4)	737(1.0)	1,458(1.6)
기타이유	3,900(24.1)	20,114(27.1)	24,014(26.5)
호기심/유혹	3,239(20.0)	1,455(2.0)	4,694(5.2)
우발적	3,004(18.5)	16,007(21.6)	19,011(21.0)
기타	3,636(22.4)	24,429(32.9)	28,065(31.0)
계	16,209(100.0)	74,250(100.0)	90,459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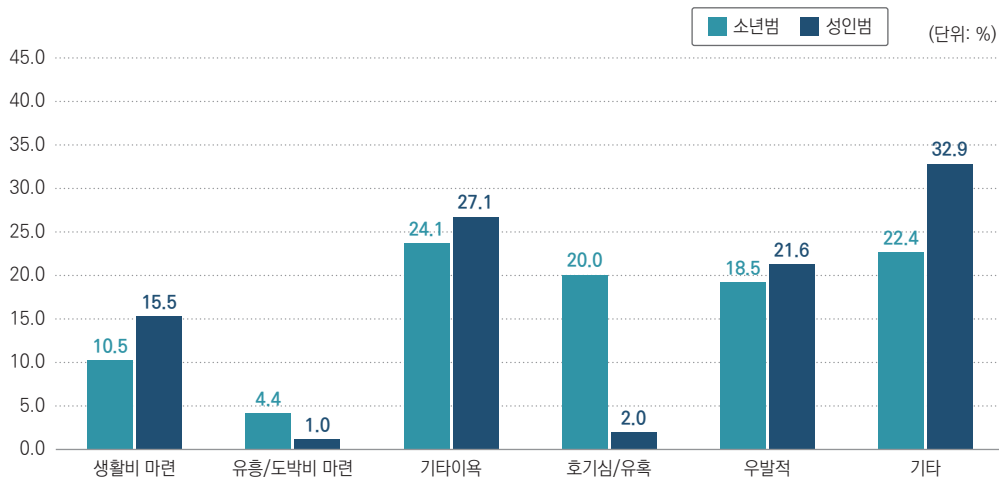


그림 60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

7. 사기

1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2023년 총 354,055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다.
- 사기범죄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62.4%, 여성이 37.6%였다.

- 사기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, 21세~30세가 23.6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, 그 다음은 51세~60세(18.4%), 41세~50세(18.3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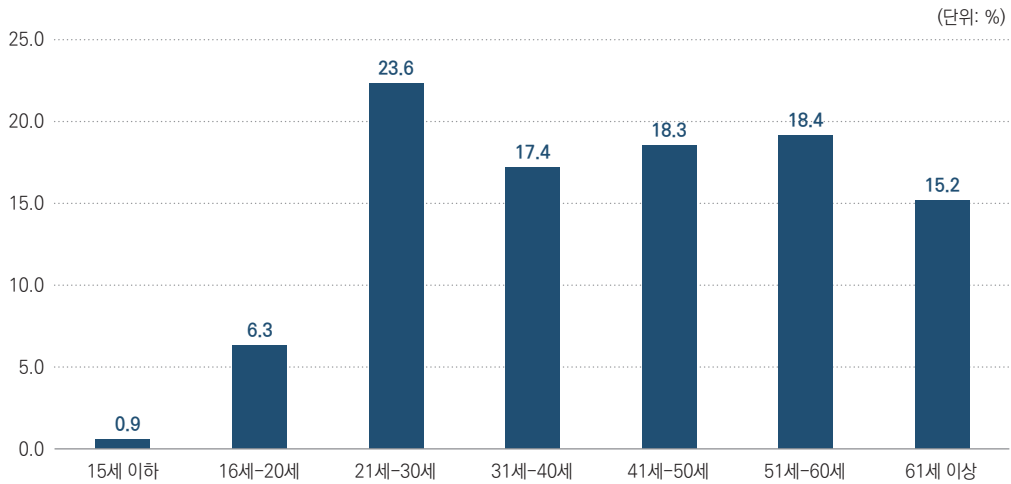


그림 61 사기범죄 피해자의 연령

2) 재산피해정도

-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수를 살펴보면, 10만원 초과~100만원 이하가 32.2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100만원 초과~1,000만원 이하로 23.8%를 차지하였으며, 1,000만원 초과~1억원 이하의 비율은 23.5%를 차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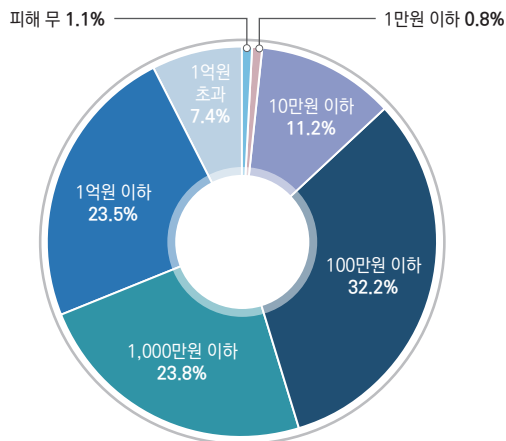


그림 62 사기범죄 피해자의 재산피해정도

3) 범행수법

- 사기범죄의 범행수법은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, 매매가장(20.8%)이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가짜속임(9.9%), 차용사기(6.5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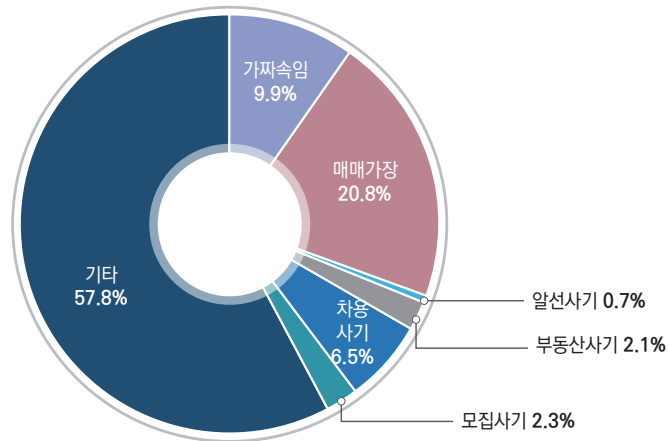


그림 63 사기범죄의 범행수법

4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사기범죄 범죄자의 77.2%는 남성이고, 22.8%는 여성이다.
- 검거된 사기범죄 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, 19세~30세가 25.7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51세~60세(20.7%), 41세~50세(20.4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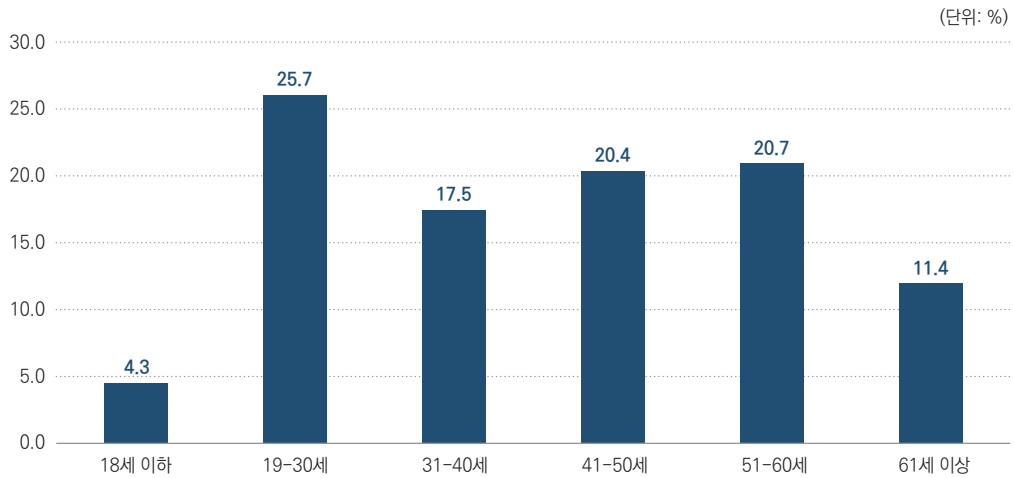


그림 64 사기범죄 범죄자의 연령

8. 교통범죄

1) 범죄발생건수

- 2023년 총 262,691건의 교통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교통사고 범죄는 90,835건으로 교통범죄의 34.6%에 해당되며, 교통사고 범죄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는 171,856건으로 65.4%에 해당된다.

2) 범죄발생시간

- 교통범죄가 가장 빈발하는 시간대는 밤(20:00~03:59)(40.7%)인 것으로 나타났다. 교통사고 범죄는 오후 시간대(33.0%)에 많이 발생한 반면에, 교통사고 범죄를 제외한 기타 교통범죄는 50.2%가 밤 시간대에 발생하였다.

표 37 교통범죄 유형별 범죄발생시간별 분포

(단위: 건(%))

범죄발생시간	교통범죄 유형		계
	교통사고 범죄	기타 교통범죄	
새벽 04:00~06:59	5,603(6.4)	11,936(8.1)	17,539(7.5)
아침 07:00~08:59	7,684(8.7)	8,098(5.5)	15,782(6.7)
오전 09:00~11:59	11,805(13.4)	14,060(9.6)	25,865(11.0)
오후 12:00~17:59	28,975(33.0)	29,056(19.8)	58,031(24.7)
저녁 18:00~19:59	12,193(13.9)	9,894(6.7)	22,087(9.4)
밤 20:00~03:59	21,658(24.6)	73,765(50.2)	95,423(40.7)
계	87,918(100.0)	146,809(100.0)	234,727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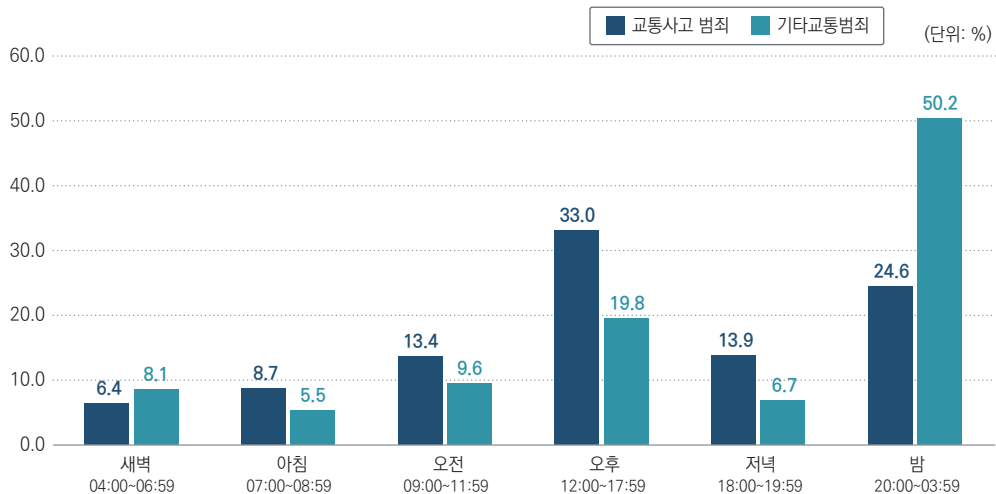


그림 65 교통범죄 유형별 범죄발생시간별 분포

3) 범죄발생지역

- 2023년 교통사고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(28.1%)였고,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(15.6%)였다. 반면에 울산광역시(1.0%)는 16개 시·도 중 교통사고 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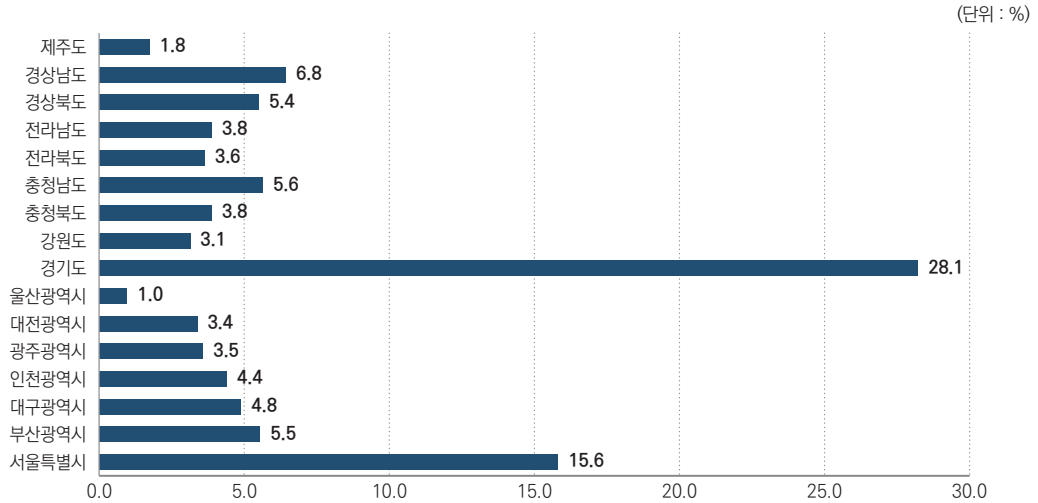


그림 66 지역별 교통사고 범죄 발생비율

- 교통사고를 제외한 기타 교통범죄의 경우에도 경기도(27.7%)의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(13.0%)였다. 울산광역시(1.3%)는 기타 교통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었으며, 그 다음은 제주도(1.9%)와 대전광역시(2.2%), 전라북도(3.1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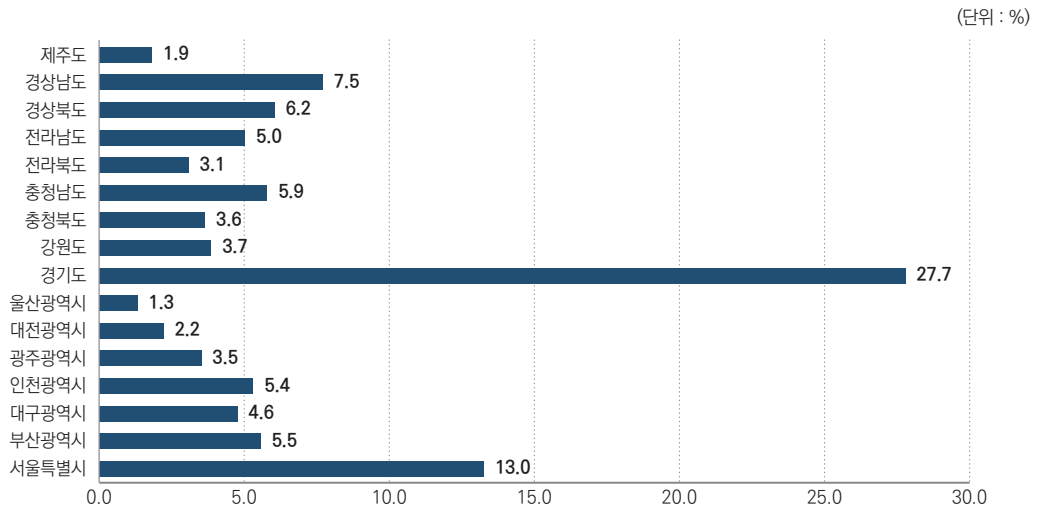


그림 67 지역별 기타 교통범죄 발생비율

4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교통범죄 범죄자의 85.4%는 남성이었으며, 14.6%는 여성이었다. 남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기타 교통범죄(89.1%)의 비율이 교통사고 범죄(78.3%) 보다 높은 반면, 여성범죄자는 교통사고 범죄(21.7%)가 기타 교통범죄(10.9%)의 비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.

표 38 교통범죄 범죄자의 유형별 성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성	교통범죄 유형		계
	교통사고 범죄	기타 교통범죄	
남성	70,075(78.3)	151,026(89.1)	221,101(85.4)
여성	19,475(21.7)	18,385(10.9)	37,860(14.6)
계	89,550(100.0)	169,411(100.0)	258,961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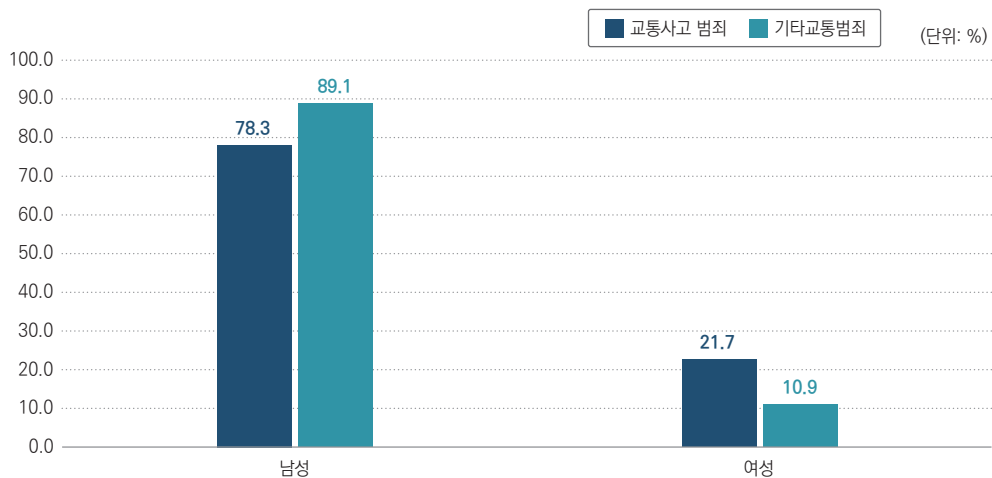


그림 68 교통범죄 범죄자의 유형별 성별 발생비율

5) 범죄자의 연령

- 교통범죄 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51세~60세로 전체의 21.9%를 차지하고 있다. 그 다음으로 41세~50세의 연령대는 21.3%, 61세 이상의 연령대는 18.7%를 차지하고 있다. 교통범죄 유형별로 연령분포를 살펴보면, 50세 이하는 교통사고 범죄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높고, 51세 이상은 교통사고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표 39 교통범죄 범죄자의 유형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교통범죄 유형		계
	교통사고 범죄	기타 교통범죄	
18세 이하	1,840(2.1)	5,731(3.4)	7,571(2.9)
19세-30세	14,481(16.2)	28,563(16.9)	43,044(16.6)
31세-40세	13,768(15.4)	34,358(20.3)	48,126(18.6)
41세-50세	15,615(17.4)	39,468(23.3)	55,083(21.3)
51세-60세	19,691(22.0)	36,946(21.8)	56,637(21.9)
61세 이상	24,123(26.9)	24,205(14.3)	48,328(18.7)
계	89,518(100.0)	169,271(100.0)	258,789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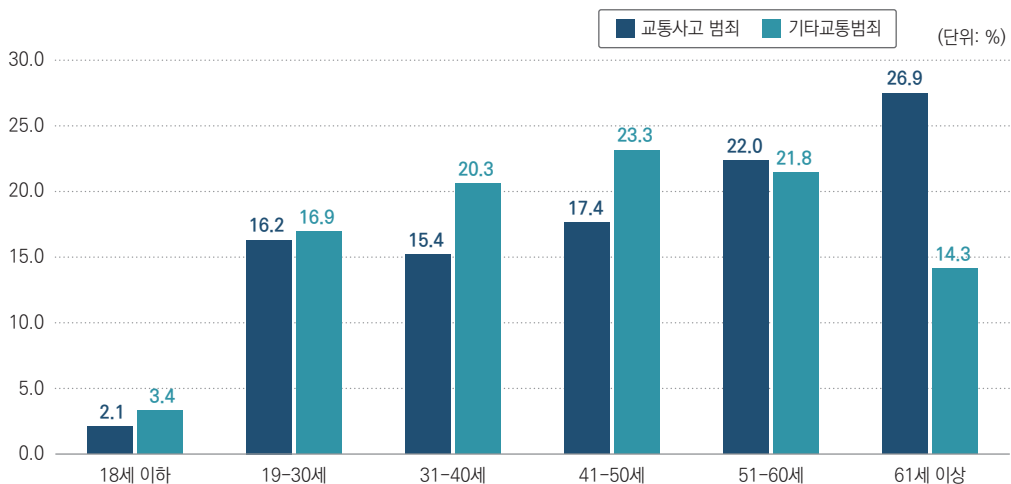


그림 69 교통범죄 범죄자의 유형별 연령별 분포

9. 13세 미만 아동대상 범죄

가. 아동유괴¹⁹

1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2023년 총 349건의 약취유인범죄가 발생하였으며, 이 중 58.5%에 해당하는 204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범죄였다.
- 아동유괴 피해자의 37.7%가 남성아동이고, 62.3%가 여성아동으로 여성아동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.

2) 범죄발생시간

- 아동유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시간대(12:00~17:59)로 전체범죄의 65.2%를 차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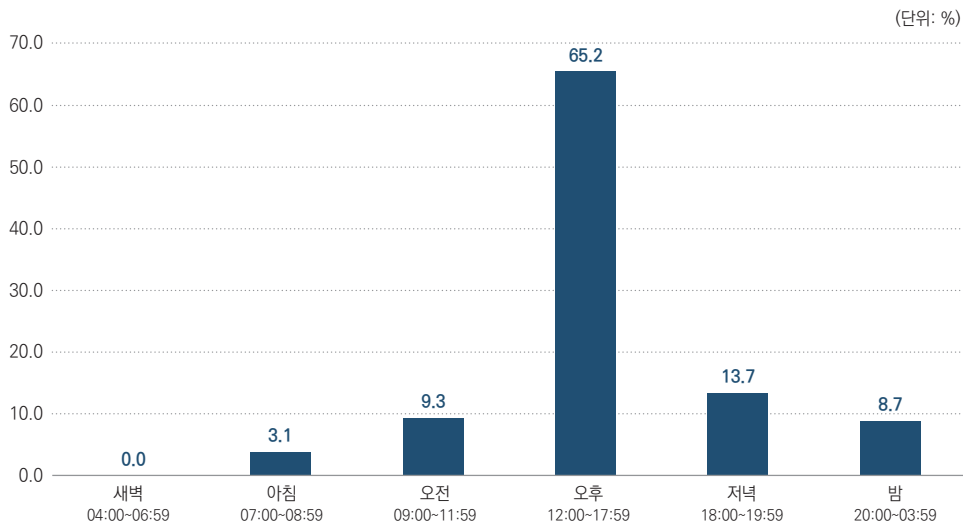


그림 70 아동유괴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19 아동유괴란 「형법」의 약취유인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범죄를 의미

3) 범죄발생장소

- 아동유괴범죄의 49.5%(101건)가 노상에서 발생하였으며, 그 외 주거지(44건, 21.6%), 기타(59건, 28.9%) 순으로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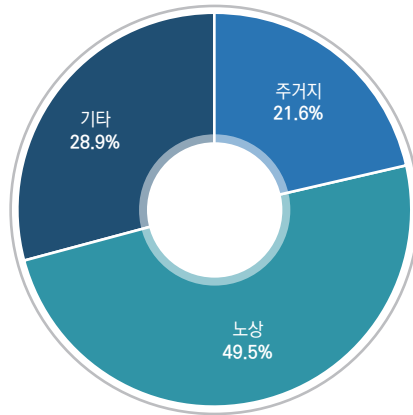


그림 71 아동유괴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4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의 73.3%(129명)가 남성이며, 26.7%(47명)가 여성이었다.
- 아동유괴범죄 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층은 61세 이상(25.1%)이며, 그 다음은 31세~40세(23.4%), 51세~60세(18.3%) 등의 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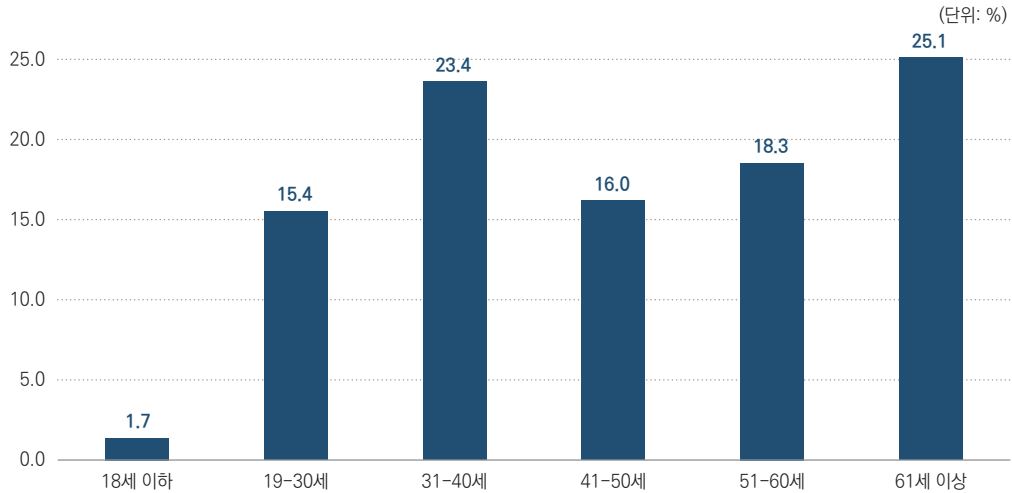


그림 72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의 연령

5) 범죄자의 전과와 재범유형

-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의 41.9%가 검거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과자로 나타났다. 또한 아동유괴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동종재범자는 5.4%(5명)로 나타났다.

6) 공범 여부

-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의 86.8%(79명)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.

7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인 경우(62.5%)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, 그 다음은 친족(27.3%), 이웃/지인(6.8%) 등의 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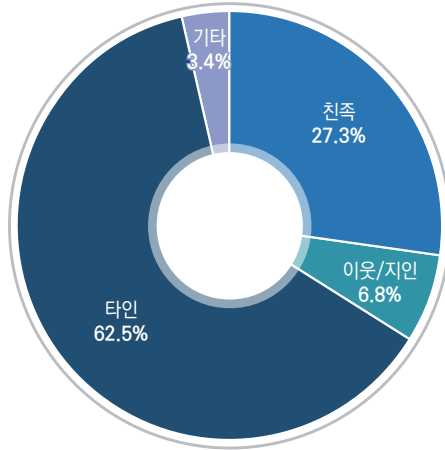


그림 73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나. 아동성폭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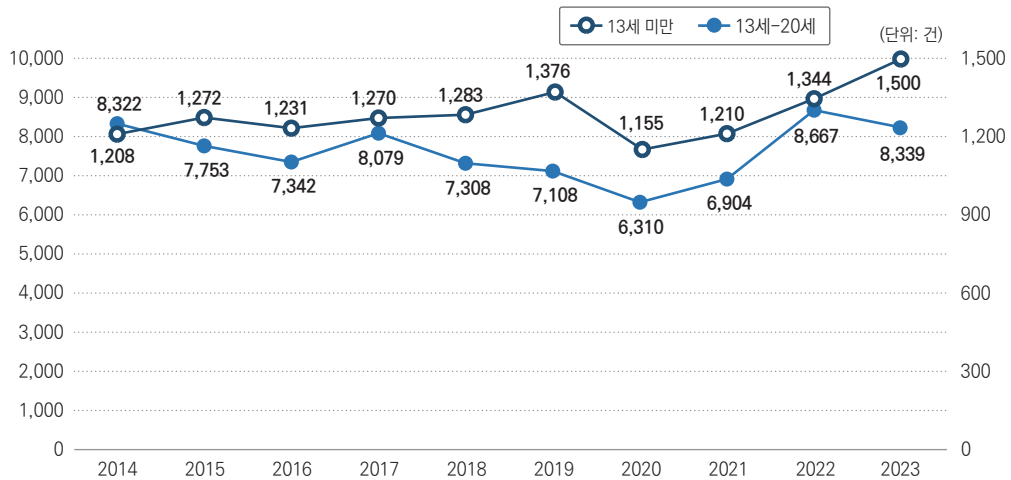
1) 발생건수

- 2023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,500건이었다.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0년 감소 후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. 지난 10년 동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24.2% 증가하였다.
- 13세~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017년을 제외하고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하였고,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 후 2023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. 지난 10년 동안 13세~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0.2% 감소하였다.

표 40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발생건수 추이(2014년~2023년)

(단위: 건, %)

연도	발생건수			증감률	
	13세 미만	13세-20세	계	13세 미만	13세-20세
2014	1,208	8,322	9,530	-	-
2015	1,272	7,753	9,025	5.3	-6.8
2016	1,231	7,342	8,573	1.9	-11.8
2017	1,270	8,079	9,349	5.1	-2.9
2018	1,283	7,308	8,591	6.2	-12.2
2019	1,376	7,108	8,484	13.9	-14.6
2020	1,155	6,310	7,465	-4.4	-24.2
2021	1,210	6,904	8,114	0.2	-17.0
2022	1,344	8,667	10,011	11.3	4.1
2023	1,500	8,339	9,839	24.2	0.2


그림 74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발생건수 추이(2014년~2023년)

2) 성폭력범죄 유형

-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, 강제추행이 62.9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강간/간음으로 22.8%를 차지하였다.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강제추행(35.0%)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전체적으로 아동과 13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는 강제추행이 39.2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, 그 다음은 강간/간음(22.2%), 통신매체이용음란(17.8%) 등의 순이다.

표 4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유형별 분포

(단위 : 건(%))

성폭력 유형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강간/간음	342(22.8)	1,846(22.1)	2,188(22.2)
강제추행	943(62.9)	2,915(35.0)	3,858(39.2)
강간등	14(0.9)	60(0.7)	74(0.8)
강간등살인/치사/상해/치상	4(0.3)	56(0.7)	60(0.6)
특수강도강간등	6(0.4)	14(0.2)	20(0.2)
카메라등이용촬영	59(3.9)	1,159(13.9)	1,218(12.4)
성적목적의장소침입	6(0.4)	92(1.1)	98(1.0)
통신매체이용음란	106(7.1)	1,648(19.8)	1,754(17.8)
공중밀집장소추행	1(0.1)	147(1.8)	148(1.5)
허위영상물편집·반포등	1(0.1)	106(1.3)	107(1.1)
촬영물등이용협박·강요	18(1.2)	296(3.5)	314(3.2)
계	1,500(100.0)	8,339(100.0)	9,839(100.0)

3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13세 미만 아동피해자의 86.3%가 여성아동이다. 아동피해자 중 13.7%가 남성아동이었는데, 이는 13세~20세 연령층 피해자의 경우 남성피해자가 15.9%라는 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.

표 42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: 건(%))

피해자 성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남성	205(13.7)	1,319(15.9)	1,524(15.5)
여성	1,295(86.3)	7,000(84.1)	8,295(84.5)
계	1,500(100.0)	8,319(100.0)	9,819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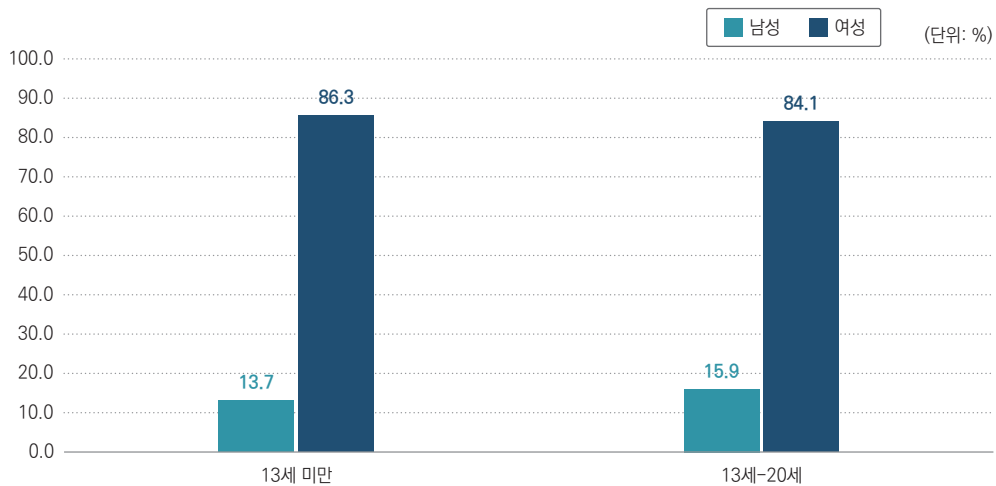


그림 75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비율

4) 범죄발생시간

-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(12:00~17:59, 54.5%)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13세~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밤(20:00~03:59, 40.5%)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과 대비된다.

표 4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발생시간별 분포

(단위: 건(%))

범죄발생시간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새벽 04:00~06:59	14(1.3)	514(8.5)	528(7.5)
아침 07:00~08:59	29(2.8)	315(5.2)	344(4.9)
오전 09:00~11:59	84(8.1)	467(7.7)	551(7.8)
오후 12:00~17:59	566(54.5)	1,645(27.2)	2,211(31.2)
저녁 18:00~19:59	149(14.4)	655(10.8)	804(11.4)
밤 20:00~03:59	196(18.9)	2,449(40.5)	2,645(37.3)
계	1,038(100.0)	6,045(100.0)	7,083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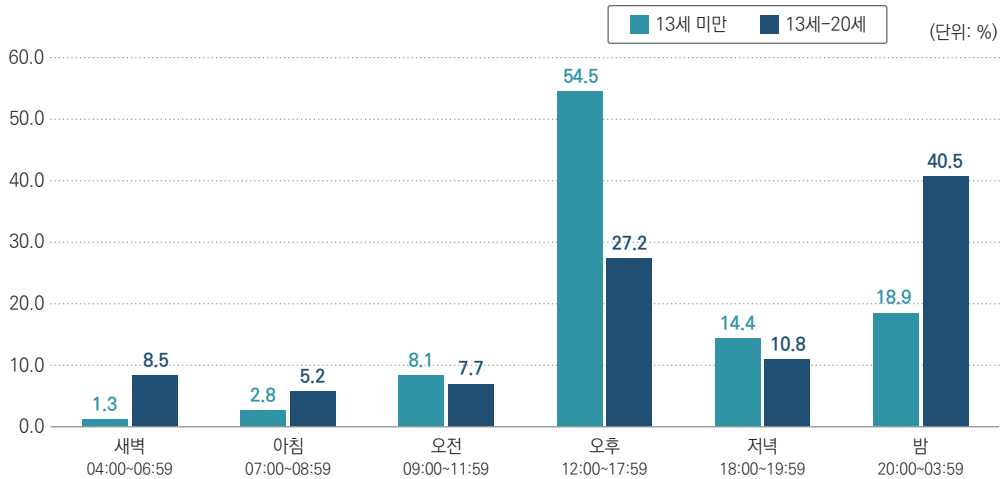


그림 76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발생시간별 비율

5) 범죄발생장소

- 범죄발생장소 중 기타를 제외하고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거지(32.9%)이며, 그 다음은 노상(15.9%) 등의 순이었다.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지(22.6%)이며, 그 다음은 숙박/유흥업소(11.9%), 노상(10.0%) 등의 순이었다.



-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가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주거지, 노상, 상점/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표 44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발생장소별 분포

(단위: 건(%))

범죄발생장소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주거지	493(32.9)	1,885(22.6)	2,378(24.2)
노상	239(15.9)	831(10.0)	1,070(10.9)
상점/시장	58(3.9)	236(2.8)	294(3.0)
숙박/유흥업소	80(5.3)	996(11.9)	1,076(10.9)
교통수단	55(3.7)	527(6.3)	582(5.9)
학교	69(4.6)	452(5.4)	521(5.3)
기타	506(33.7)	3,412(40.9)	3,918(39.8)
계	1,500(100.0)	8,339(100.0)	9,839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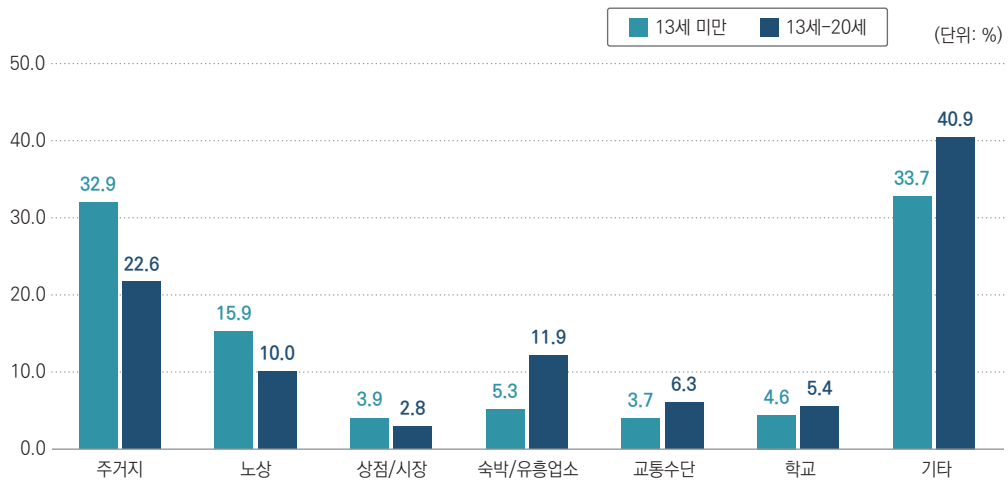


그림 7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발생장소별 비율

6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97.4%는 남성이고, 여성은 2.6%에 불과하였다.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19세~30세로 21.0%를 차지하고 있다. 그 다음은 18세 이하(20.7%), 61세 이상(19.5%) 등의 순이었다.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는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에 비해 31세 이상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표 45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18세 이하	259(20.7)	2,185(31.0)	2,444(29.4)
19세~30세	263(21.0)	2,739(38.8)	3,002(36.2)
31세~40세	176(14.1)	877(12.4)	1,053(12.7)
41세~50세	145(11.6)	523(7.4)	668(8.0)
51세~60세	164(13.1)	413(5.9)	577(7.0)
61세 이상	244(19.5)	314(4.5)	558(6.7)
계	1,251(100.0)	7,051(100.0)	8,302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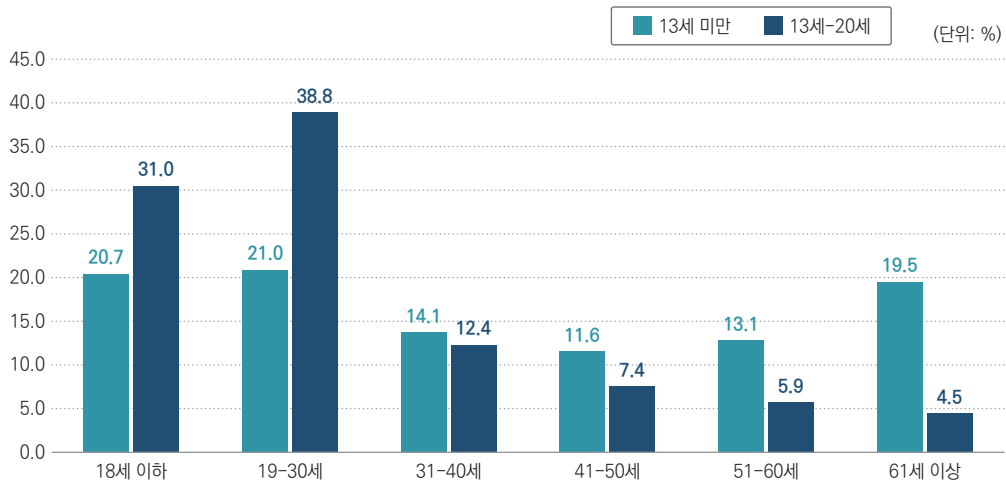


그림 78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 연령별 비율

7) 범죄자의 전과 및 동종재범
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45.8%가 1회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리고 재범자 중 20.1%가 이전에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동종재범자로 나타났다.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는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보다 전과 비율(13세 미만 45.8% / 13~20세 37.2%)이 높았으며, 동종재범 비율도(13세 미만 20.1% / 13세~20세 19.7%) 높게 나타났다.

8) 범행당시 범죄자의 정신상태
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80.7%가 정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.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9.5%이며,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9.8%이다.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낮은 반면에,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비율은 더 높았다.

표 46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행시 정신상태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정상	830(80.7)	4,356(80.6)	5,186(80.6)
정신장애	101(9.8)	183(3.4)	284(4.4)
주취	98(9.5)	867(16.0)	965(15.0)
계	1,029(100.0)	5,406(100.0)	6,435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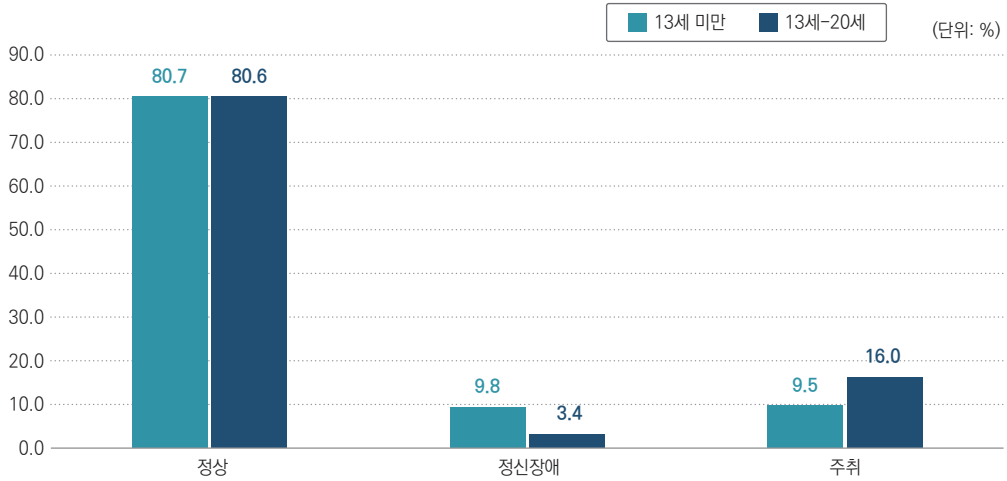


그림 79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별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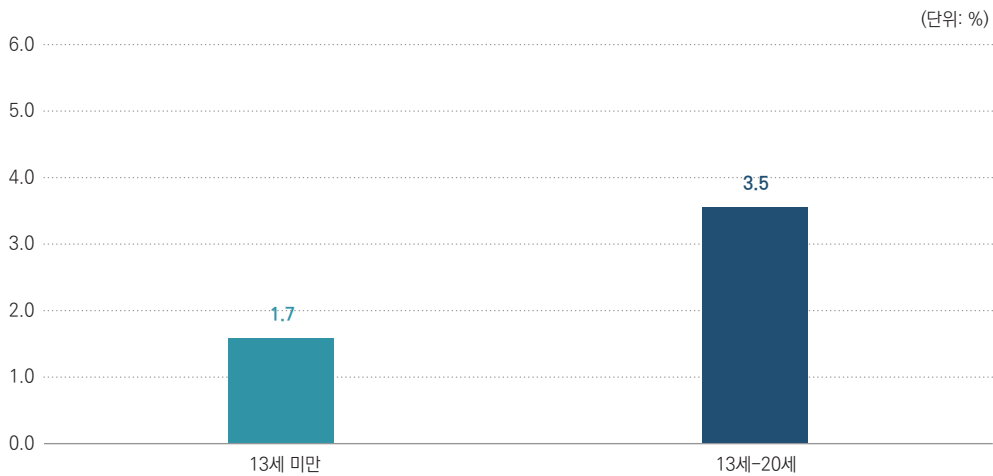
9) 공범 여부
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98.3%가 단독범이었다.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96.5%가 단독범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연령에 따른 공범비율은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표 4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 공범 여부별 분포

(단위: 명(%))

공범 여부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단독범	1,026(98.3)	5,242(96.5)	6,268(96.8)
공범	18(1.7)	192(3.5)	210(3.2)
계	1,044(100.0)	5,434(100.0)	6,478(100.0)


그림 80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 공범비율

10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, 64.6%가 타인이었다. 그 다음으로 친족(14.0%), 이웃/지인(13.2%) 등의 순이었다.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범죄자가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이웃/지인, 타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.

표 48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친구/직장동료	26(2.1)	1,026(14.6)	1,052(12.7)
애인	33(2.6)	470(6.7)	503(6.1)
친족	174(14.0)	167(2.4)	341(4.1)
이웃/지인	165(13.2)	795(11.3)	960(11.6)
타인	805(64.6)	4,237(60.2)	5,042(60.8)
기타	43(3.5)	349(5.0)	392(4.7)
계	1,246(100.0)	7,044(100.0)	8,290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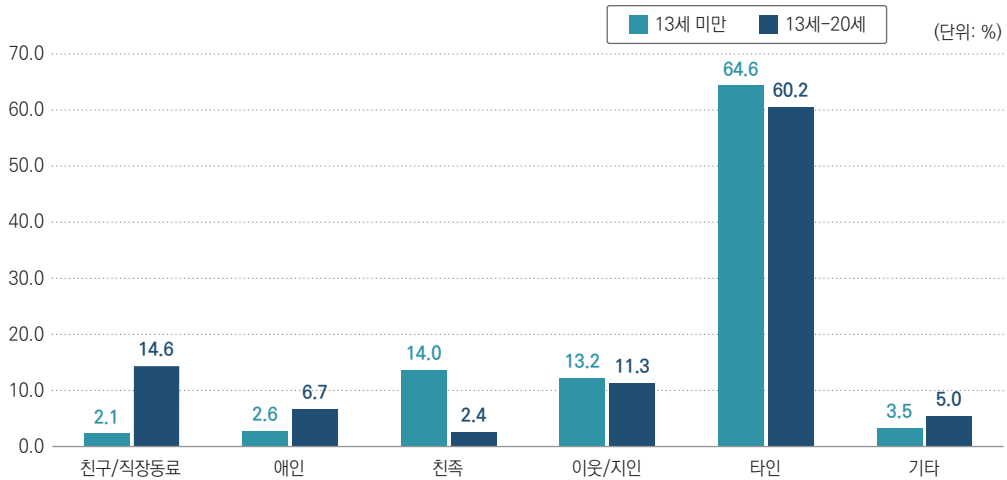


그림 8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비율